

밟아가면서라도 얼마한 희생을 바칠지라도 마지막의 필승을 얻고야 말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 못하는 경우의 서러울 일을 생각할 때에 기어이 이겨야 할 결심이 새로 굳을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의 유래와 목적 및 그 영향은 이제 번거로이 여러 말씀할 것 없이 누구나 환하게 아는 바
이거니와 시시각각으로 가열 처장해가는 전국(戰局)의 실체는 이미 한만한 공리공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되었습니다. 한 치라도 팔을 더 뽑내고 한걸음이라도 발을 더 내디더서 승리로의 전두(前頭)로 돌
진하는 이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무 다른 일이 없는 현상입니다. 대포와 대포를 마주 놓고 칼과 칼
을 서로 겨누는 치령치령한 전례(前例)의 싸움인 것 아니라, 붉은 뺨 까만 눈의 묘소년이 생명의 애착을
가지지 아니 하듯이 필중필사를 목표로 하여 적기(敵機)적함(敵艦)을 들어 부수는 특별공격대로써 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애뜻한 남편이 돌아올 리 없는 공격대를 타고 나선 기별을 듣고서 백발의
아버이는 자식 둔 보람이 있다하고, 연지 짙은 새색시의 뺨에 눈물대신 웃음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나라가 없이 몸과 가정이 어디 있으라하는 각오는 전선과 총후를 한 끈에 잡아매어서 대만의 외양
(外洋)에서, 필리핀(比律賓)의 포구에서 먼 타방에서 뿐 아니라, 가까운 발밑에서 나날이 시시로 승고
장렬한 일본정신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인류의 역사 있어 온 뒤에 처음 있고 다시 보지 못할
맵고 쓰라린 독한 싸움이 대동아 육해공 전면에서 벌어지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은 바야흐로 제4년을 향하여 걸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 해 동안에 우리의 숨
은 실력이 얼마나 세고 큰 것은 교만한 적 미영이라도 그옥이 깨닫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
로 우리의 힘은 이제로부터 나올 것이며 또 그것을 내어 보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넷째 돌을 맞이하
기 전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허다한 어려운 길목이 있고 그것을 죄다 뚫고 나감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 또 물질적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도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견인지구(堅忍持久)하여 최후까지 버티는 힘이 무엇보다도
요긴합니다. '승리는 최후의 5분간'이라는 말은 대전략가 나폴레옹의 격언으로서 그 진리성을 허
다한 실례로써 증명된 바입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능히 일주일만 더 버텼더라면 영
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굴복하였으리라 함은 후일에 이르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이번 대전에서 있어서
독일이 파죽의 세로 모스크바의 턱밑까지 쳐들어갔을 때에 누가 오늘날 동서 두 전선에 있는 독일
의 쪼그라든 형상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나는 최근에 전번 대전의 말기에 있어서 1918년 봄에 독일군사
령관 루덴돌프가 영불(英佛)연합군의 허리를 끊고 파리(巴里)함락이 시간문제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연
합군의 신사령관 쫓슈가 견인지구로써 영불 양군의 연락을 회복하고 퇴격을 만회하여 7월 이후에 반공
을 개시하면서 독일군을 프랑스 영토 밖으로 몰아내고 다시 그 후방의 퇴로를 끊기까지 하여 마침내
투톤드 삼림에서 굴욕적 휴전조약을 맺게 되는 기록을 읽으면서 전국의 추이탄 과연 짐작하기어려움을
다시금 깊이깊이 느꼈습니다. 시방 태평양전국으로 볼지라도 과달카날 이래로 남태평양에 서려있든
질은 안개가 대만과 필리핀을 잡아맨 내선(內線)작전에 이르러서 씻은 듯 거처지고 희망의 새벽빛이
특별공격대의 독수리 날개 밑으로서 비쳐올 줄을 누구나 다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교만한 적
미영미 자랑하는 물질과 수량이 수고스레 수만리 파도를 건너와서 흥안 묘소년들의 웃으며 덤비는 육
탄의 밥이 됨을 보면 저의 이른바 백척의 전함, 천척의 항공모함, 만척의 수송선을 이미 우리의 안중에
두질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억의 필중탄(必中彈)이 있어 최후의 언제까지고 버티고 나가는 바에 무

서운 대적이 어디 있으며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는 정세가 거북하여지면 그만큼 더 우리의 싸우는 숨씨를 들어낼 뿐이요, 싸우는 동안이 길어져 가면 그만큼 우리의 버티는 힘이 무서움을 저희에게 알릴 수 있을 따름이지 싸우기 전부터 이거 이겼다할 이 싸움에 마침내 이기고 마는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전쟁은 이름과 같이 대동아전체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태평양전쟁의 완전한 승리는 결국 대동아 전민중의 일치 철저한 노력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것이며 다함께 견인지구하고 똑같이 분투(奮鬪) 돌진하는 공력(功力)으로써 비로소 성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아 전민중의 완전한 일치협력은 다만 똑바른 이해와 신뢰에서만 기대(期待)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일본은 일본이 아무리 영특할지라도 일본 혼자서 대동아를 건설할 수 없음에 생각하여서 모름지기 대동아의 전 민중으로 하여금 충심(衷心) 지성(至誠)으로 일본의 지도력에 와서 복종하게 할 만한 반성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동아의 전민중은 일본의 참뜻과 실력을 정당히 깨닫고 일본이 일찍이 원나라 흘필렬(忽必烈)의 두 번 침입을 씩씩하게 물리치는 그 결심, 그 용기, 그 담력을 배워서 동야 천년의 대계를 건설하는 이 싸움에 철저한 협력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대동아의 세계는 처음부터 운명적 생활공동체임을 투철히 각오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곤경을 당할 지라도 대동아끼리는 서로 의지하여서 적게는 달고 쓴 것을 한가지로 하고 크게는 살고 죽기를 함께하는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태평양전쟁이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대동아의 해방과 보위를 위한 거룩한 사업임은 황송(惶悚)할손 선전대조(宣戰大詔)에 뚜렷이 표시하신 바입니다. 이는 결코 야심가의 일시 정책이거나 이른바 영웅의 무책임한 방언이 아님을 살피시고 대동아의 십억 대중은 마땅히 금석보다 더 믿고 일월보다 더 밝게 이 거룩하신 뜻을 고맙게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옛날에 한나라의 망한 것을 일으켜주고 한 임금의 끊어진 뒤를 다시 이어주기만 하여도 대단한 의거임을 사가(史家)가 칭송하였으며 서양의 역사에는 수만 수십만의 꾸물거리는 노예를 해방하여 준 것을 인도상의 대사업이라고 대서특필하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의 대부분이요 또 오랜 전통과 높은 문화를 가진 대동아전체의 역사적 모든 민족을 죄다 해방하는 이번 태평양전쟁은 과연 무슨 말씀과 어떤 글월로써 그 신성광대한 공덕을 찬미해야할는지 아마 후세의 역사가가 적당한 표현법을 얻기 어려움에 상막해 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냥감냥의 공헌을 함은 진실로 대동아 오늘 민족들의 희한한 영광이며 또 이런 일에 진행도정에서 우리의 인내력, 분투력을 시련(試鍊)함은 일각(一刻) 일각과 일단(一段) 일단이 그냥 우리 영혼의 도덕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동포도 대동아 민중으로서 세기의 거룩한 사업에 참가하며 일본국민으로서 그 추진력의 일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민은 일찍 국가의 흥망을 태어나게 한 대사와 난국에 처하여 진실로 검질긴 견인력과 무한한 반발력을 드러냄에서 위대한 성능을 여러 번 증명한 자입니다. 일찍 수(隋) 나라 석제(煬帝)가 중국 중원을 통일한 큰 위엄으로써 백만 대군을 이끌고 풍우같이 요동으로 나서서 고구려로 침입하매 그 세가 마치 태산으로써 계란을 치는 것 같았지마는 대재상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천연하게 이를 맞이하여 싸우면 패하고 패하면 도망하여 적군을 천여리나 끌어들여가지고 도도(圖都)를 거의 바라보는 살수(薩水)인가에 이르러서 문득 말머리를 돌려서 한번 반격작전을 시작하매 수나라 병사 백만이 단번에 놀란 귀신이 되고 그 끝으로 그 큰 수나라가 거꾸러지기에 이르렀던 일도

있습니다. 또 대막(大漠)의 북방에서 몽고(蒙固)부족이 발흥(勃興)하여서 케를렌 강변의 하찮은 부락이 부정부정 커져서 마침내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이룰 동안에 몽고인의 말굽이 가는 바에 쓰러지지 않는 성시가 없고 굶하지 않는 인민이 없었거늘 전후 40년 동안 항전을 계속하여 그 무서운 대선풍 속에 깨끗하게 저의 지위를 보존하다가 겨우 국제적 친족관계를 맺은 뒤에야 그만둔 것이 고려(高麗)입니다. 이 항전 계속 기간에는 장렬무비한 가지가지의 무용담이 있거니와 그중에도 고종(高宗)18년에 몽고 원수(元帥) 살리타(撒禮塔)의 대군이 귀주성(龜州城)을 포위하여 공중으로 지하로 물로 불로 무릇 사람의 힘이 자라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서의 가열한 공격하에 서북면병마사 박서(朴犀) 이하 군관민이 곤고(困苦)와 결핍과 기아와 질병 등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여가면서 최후까지 성을 온전히 지키고 마침내 늙은 적장으로 하여금 ‘천하를 다 돌아다니되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이토록 굴복하지 아니하는 성(城)은 처음 보겠다’ 하는 탄식을 발하게 한 것 같음은 진실로 천추의 나약한 지아비를 떨쳐 일어나게 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례는 조선역사사의 어느 시기에서고 수북하게 발견하는 바로서 이 소질을 나타내고 이 전통을 빛내는 곳에 대동아건설 전선상에 선 우리의 든든함과 믿음성이 있는 바입니다. 아모래한 간난신고(艱難辛苦)라도 ‘오는 것은 다 오너라, 무엇이랴도 견디고 이기고 기어 이 물리칠테다’ 하는 조선 남아의 의기를 나타냄이 있을 따름입니다.

대동아 전국(戰局)의 시방단계는 이미 특별공격대로 하여금 정말 특별공격대에게 하고 말 수 없을 정세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억 국민이 죄다 특별공격대가 되어서 싸움터와 일터의 구별이 없이 대동아건설에 유효한 필중탄을 발사해야 할 때에 다다랐으며 다른 날 열 가지 보다 오늘 한가지로 다른 날 열시간 보다 오늘 한 시간에 특별공격적 봉공을 하라함이 국가 당면의 요구입니다. 넓게는 대동아 십억 대중까지도 날날이 특별공격의 정신과 태도에 철저히여서 돌파하는 사선의 저쪽에 있는 영광의 대동아를 다 한가지로 붙잡고 말겠다고 굳이 맹서할 것입니다. 지도를 펴고서 동아 대륙의 바다를 휩싸고 치시마(千島)와 대만을 두 끝으로 하는 일본의 긴 활동이 태평양에 대한 방파제를 일궈가지고 있음을 보든지 역사를 떠들고서 육지발견시대 이래로 동방세계의 모든 국토와 인민이 모조리 서방, 사람의 아가리에 피칠을 하였는데 마지막 하나님은 일본이 홀로 버티고 일어서서 오랫동안 팔뚝에 힘을 올리다가 전동방의 분노를 대신하여 결의있게 주먹을 치켜든 것을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번 태평양전쟁의 수상치 아니한 본질을 깨달을 것이며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이 전쟁이 실상 대동아 전민중의 저마다를 살리기 위하여 일어난 보살행임을 깨다를 것입니다. 공손히 대동아 선전(宣戰)의 대조를 배독(拜讀)하건데 마치 관세음보살이 오탁악세(五濁惡世)¹⁰⁷⁾의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섭취불사발고여락(攝取不捨 拔苦與樂)의 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 같은 거룩하신 마음이 글자마다와 글인 줄 마다 가득히 서려있음을 고맙게 알아 뵈을 것입니다. 이 무량 은덕을 우리가 무엇으로써 어떻게 보답한다하겠습니까. 다 한 가지 대동아건설의 특별공격대로서 하루 바빠 대동아하늘의 완악(頑惡)한 구름을 헤치고 대동아 본연의 다사한 빛 받을 제각기 제 것을 만드는 이외에 다시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동아는 대동아인의 대동아요 단연히 적 영미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출전 : 崔南善, 「特攻隊의 精神으로 聖恩에 報答합니다」, 『放送之友』 3卷 1號, 1945년 1월, 22~27쪽〉

107) 오탁(五濁)으로 가득 찬 죄악의 세상. '말세(末世)'를 달리 이르는 말.

21. 최린(崔麟)

1) 총동원 강화에 대한 사건

이사 최린

오늘날 주야로 이어지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세계의 동향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전시체제에 의해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바의 고급 미증유의 세계대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도저히 25년 전의 유럽대전은 비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그 전과가 미치는 영향은 인류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 것이리라.

따라서 비상시라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사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 동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당이니 만큼, 이 세계적 비상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있어야 한다. 혼란 뒤에 오는 신질서의 건설 위에 모든 운동이 동원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신총동원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민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정신총동원의 지도적 입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비상시국을 인식하지 못하여 민중을 계발하고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정신총동원 운동은 형식에만 그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반도에서의 정신총동원의 강화는 위와 같은 점에서 그 대상을 소년·아동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그 교화력을 가정에서의 부인들의 계몽에 둘 것을 역설하고 싶다. 반도의 장래를 짚어지고 일어선 제2 국민에게 깊이 황국정신(皇國精神)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부인의 교육력이 한층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2의 국민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평온한 날이 없을 정도로 요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교육이 지닌 큰 결함이라 할 수 있는 주입식주의가 감수성이 강한 소년, 아동에게 강요되고 있어서 일견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오늘날 조선의 학교교육의 현황이다. 이러한 답답함은 가정에서의 부인의 훈도(薰陶)에 의해 눈부신 약동성을 아동들의 가슴속에 침투시키지 않는다면 도저히 황도정신의 미과(美果)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오늘날 조선의 가정에서의 부인의 지적 표준은 능히 아동을 계발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교양에서도, 지적으로도 유감스럽지만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선의 부인들이 오직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부로의 적극적 진출을 저해하는 환경 속에서 신음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종래의 관습적 악기류를 돌파해서 역으로 명랑한 가정부인의 사회적 공헌력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일이야말로 조선부인의 계몽에 있어서

특히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총동원의 큰 사명이 있으며, 부인들의 계몽과 교육을 향해 나서야 하는 의의가 있다. 내가 총동원의 강화에 대한 사견으로서 가정부인의 교육문제를 새삼 제기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예부터 조선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쪽이 뛰어나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사상에서도 외국의 부인처럼 다채롭지는 않고 사물을 생각하는 길이 솔직하고 성격적으로도 소박하기 때문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총동원 운동은 반드시 눈부신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는다.

가령 생활개선 문제만 하더라도 남자보다 가정의 주부가 중심이 되어 주부의 힘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조선의 가정부인을 보면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참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녀들의 노력과 근면은 실로 감탄할 만한 것으로, 이처럼 강한 부인들의 활동력을 오늘날과 같은 낭비에서 구제하여 비상시에 걸맞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총동원의 사명은 충분히 달성되리라 본다.

오늘날의 비상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 국민은 바야흐로 거대한 균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 개의 못의 절약부터 요청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중국대륙의 전쟁터에 대군을 보낸 일본은 거대한 산을 이루는 황군장병들의 식량조차 실로 부역의 한 톨의 쌀의 귀중함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요청받고 있는 오늘날, 온 나라의 정신총동원 운동이 종래의 성인층·남자 편중의 지도방침에서 180도 전환을 시도해 가정주부의 각성과 제2의 국민의 강건한 의지에 기초함으로써 비로소 그 진면목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39년 12월 14일)

〈출전 : 崔麟, 「總動員強化への私見」, 『總動員』 2卷 1號, 1940년 1월, 26~27쪽〉

22. 한상룡(韓相龍)

1) 황실의 미영(彌榮)을 송봉(頌奉)하다

여기에 성전(聖戰) 4주년에 이르러 가장 빛나는 기원 2600년의 신춘을 맞이해 삼가 보조(寶祚)¹⁰⁸⁾의 무궁과 성수(聖壽)의 만세를 봉축하고 황실의 번영을 기린다.

돌이켜 보면 이번 '사변(事變)¹⁰⁹⁾ 발발 이래 우리 황군(皇軍)은 혁혁한 전과를 올려 국위를 세계에 발양시킨 위대한 공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일사군국(一死君國)에 순직한 전역(戰役) 장

108) 왕위.

109) 중일전쟁.

병들의 명령에 대해 경조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제 전황은 매우 광대한 동시에 장기 건설 공작의 진척으로 한편으로는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아울러 유럽 동란의 영향으로 국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경제의 통제강화에 따른 사업 및 생활에도 부자유를 느끼고 있지만, 은인분투(隱忍奮鬪)의 결과 사변은 시종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동아 신질서의 건설은 착실히 구현되고 있다. 우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은 마치 태양과 같이 세계를 비추어 중국의 민중도 점차 자신의 행복을 이해하게 되면서 강고한 중앙집권의 실현도 멀지 않았다. 따라서 장제스(蔣介石)의 몰락도 다가오고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성업(聖業)의 완수는 전도요원하고 장기 건설의 대각으로 멸사봉공(滅私奉公), 한 명도 남김없이 사자와 같은 맹렬한 기세로 국가총력에 협력하고 병참기지사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다하자.

〈출전 : 韓相龍 「皇室の 彌榮を頌し奉ろ」, 『總動員』 第2卷 1號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40년 1월, 11쪽〉

23. 현영섭(玄永燮)

1) 조선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전망

국민총동원조선연맹 간사 현영섭

필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사무국의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직접 보고 듣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운동의 책임자는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 사견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국민정신이란 바로 일본 국민의 정신이고 우리 일본인의 정신이란 일본정신이며, 일본정신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그 근본정신은 우리 일본 국민 모두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받들어 모시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정신이다. 이 국민정신을 총동원한다는 것은 위로는 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하녀·잡부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양양하는 것이다. 국민정신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조선연맹의 취지서와 동 연맹 발회식에서의 이사장의 식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나사변(支那事變)¹¹⁰⁾은 고급 미증유의 사건이라서 동양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런 만큼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결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고 더욱 미묘해지고 있어서 사태의 추이는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시국을 재인식하고 더욱 국민정신을 강화하여 앞으로 그 어떠한 난국에 직면하더라도

110) 중일전쟁.

라도 늘 견인지구(堅引持久)하고 만난(萬難)을 이겨냄으로써 국민적 사명 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정세를 고려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철저히 관철시켜 존엄한 우리 국체에 입각해 더욱 진충보국의 정신을 양양하여 이를 국민 일상생활의 실천에 구현화(具現化)·항상화(恒常化)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 또한 국민 전체의 의지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여기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결성하여 사회 각 방면에 걸쳐 동일 지도정신 아래 운동을 통제 강화하여 진정으로 관민협력, 내선일체(內鮮一體) 국책에 순응하여 총후(銃後)의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연맹 취지서).

광둥(廣東)·한커우(漢口)를 함락해도 동아의 신질서 건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관민이 일치하여 국가총동원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국가총동원의 결실은 진충보국의 마음을 기초로 한 국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비로소 그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조선의 일역의 국민정신을 종합·통일하여 이를 조직하고 기능화하여 강력한 운동 요소로 삼는 것을 작금의 시급한 급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연맹 발회식에서의 이사장 식사)

반도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운은 사변 발발 이래 들끓듯 발흥하는 애국심과 맞물려 자연스레 양성되어온 것인데, 1938년 7월 1일 전 조선의 유력단체 65개, 일본과 조선의 민간 유력자 57명의 발기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총재로 오오노(大野) 정무총감을 추대하고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씨가 이사장이다.

이하라 엔지로(井原淵次郎), 이사가 게이이치로(井坂圭一良), 이시하라 이소지로(石原磯次郎), 윤치호(尹致昊),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니와 세이지로(丹羽清次郎), 니시오카 요시지로(西岡芳次郎), 니시모토 게이조(西本計三), 박흥식(朴興植), 박영철(朴榮喆), 도고 미노루(東郷實), 이각중(李覺鍾), 이승우(李升雨), 가다 나오지(賀田直治), 가미야 고이치(神谷小一), 한상룡(韓相龍), 다구치 스케가즈(田口彌一), 조병상(曹秉相), 손정규(孫貞圭),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아마지 야스유키(山地靖之),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마쓰시마 기요시(松島清), 원덕상(元憲常), 후지와라 기조(藤原喜藏), 고에즈카 쇼타(肥塚正太), 곤도 기이치(近藤儀一), 아마야 겐지(天谷健二), 최린(崔麟), 최창학(崔昌學), 기시 유이치(岸勇一), 김활란(金活蘭), 김대우(金大羽), 김명준(金明濬), 가미우치 히코사쿠(上内彦策), 김성수(金性洙), 김사연(金思演), 시모무라 스스무(下村進), 민규식(閔奎植)

의 40명이 이사이다.

(이 중에서 윤치호, 야나베 에이자부로, 이각중, 이승우, 조병상, 마에다 노보루, 고에즈카 쇼타, 김대우 씨는 상무이사이다)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하야시 시케조(林繁藏),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眞六郎), 아마쓰라 요시쿠니(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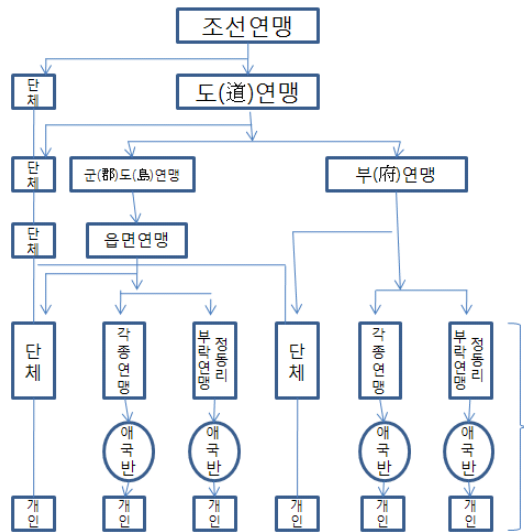
庶義邦,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오타케 주로(大竹十郎), 구도 요시오(工藤義男), 야마다(山田忠次),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마쓰자와 다쓰오(松澤龍雄), 유무라 다쓰지로(湯村辰二郎), 미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미야모토(宮本元),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男), 다카하시(高橋敏)

등 제씨가 참여(參與)다.

7월 7일 지나사변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연맹 발회식이 성대하게 경성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발회식 당일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경성부민이 총동원되어 참가하여 약 4만 명의 대중들이 미나미(南)충독의 강력한 고사(告辭)에 감격하면서 총후의 열의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뒤 조선연맹 조직대강에 의해 조선 각지에 연맹이 조직되었다. 그 계통은 아래 그림과 같이 행정구역에 따른 것으로, 정동리부락(町洞里部落)에도 연맹이 있고, 10가구마다 애국반(愛國班)을 조직하고 부읍면(府邑面)의 관공서·학교·회사·은행·공장·대상점 등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곳의 소속 인원으로 각종 연맹(가령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정신총동원 경성조선은행연맹·국민정신총동원 경성부청연맹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연맹 조직계통 도해〉



2.

연맹은 반도 2,300만 민중 전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애국반 약 38만 개, 반원 수 410만 명에 달하고 있다(1938년 12월 1일 현재).

각 도의 연맹 조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22일 각 도 연맹·가맹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다음과 같은 강령·실천 요목·약속사항 등을 결정했다.

[조선연맹 강령]

- 하나, 황국정신(皇國精神)의 현양(顯揚)
- 하나, 내선일체의 완성
- 하나, 생활의 혁신
- 하나,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
- 하나, 근로보국(勤勞報國)
- 하나, 생산보국(生産報國)
- 하나, 충후의 후원
- 하나, 방공방첩
- 하나,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
- 이상의 9대 강령을 실현하는 실천 요목으로서,
- 하나, 매일아침 궁성요배
- 하나, 신사참배 여행(勵行)
- 하나, 선조의 제사 여행
- 하나,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
- 하나, 국기를 존중, 계양을 여행
- 하나, 국어생활 여행
- 하나,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기준 양식의 실행
- 하나, 국산품 사용
- 하나, 철저한 소비절약, 저금 여행
- 하나, 국채응모 권장
- 하나, 생산의 증가와 군수품의 공출
- 하나, 자원애호
- 하나, 근로보국대의 활약 강화
- 하나, 하루 1시간 이상 근로증가 여행
- 하나, 농산어촌 갱생 5개년 계획 완전 실행
- 하나, 전가(全家) 근로
- 하나, 응소 군인 환송·환영, 상이군인 위문
- 하나, 출정군인 및 순국자 유가족 위문위령, 가업 방조(幫助)
- 하나, 기회 있을 때마다 순국자 영령에 묵념
- 하나, 유언비어를 삼가고 간첩 경계
- 하나, 방공방첩 협력

제1회 결정사항

하나, 매일 아침 궁성을 요배할 것, 애국일을 철저히 지켜 매월 1일 집단으로 궁성을 요배할 것.

하나, 연맹 표준복을 양복 신조(新調)의 경우 착용할 것.

하나, 연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후 11시까지로 할 것.

하나, 의례장(儀禮章)을 착용할 것(경시(慶視) 홍백접형(紅白蝶型), 상장(喪章) 흑색접형)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구체화로서 연맹에서는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를 작년 10월 22일, 24일 양일간 개최해서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 기준을 결정했다. 위원은 전 조선의 관민·학계·부인계의 유력자 약 100명으로, 종래의 생활개선 운동의 새로운 전개뿐만 아니라 지방 순회강연에 참가해서 조선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 기준

의(衣)

- 1) 의료애호(衣料愛護) 사상의 철저한 함양
- 2) 의료자원(衣料資源)의 배양
- 3) 사장의료(死藏衣料)의 활용
- 4) 재활용 재료의 동원운동
- 5) 새로운 제작 보류
- 6) 새로운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① 남자 조선복은 색복을 본래의 취지로 하고 옷고름을 폐지할 것
 - ② 여자 조선복은 조선부인문제연구회의 안을 기준으로 할 것
 - ③ 양복 상용자는 본 연맹 소정의 표준복 같은 것으로 하고 옷감 및 색은 임의로 할 것
- 7) 길흉 및 기타 의례의 경우에는 평상복에 본 연맹 소정의 휘장을 패용(佩用)해서 예복을 대신할 것
- 8) 낡은 재료의 공예화에 의한 이용

식(食)

- 1) 식사는 보건 및 영양을 중시해 간소를 본래의 취지로 한다
- 2) 식사할 때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 가족 같은 시각에 식탁에 앉을 것
- 3) 축제 때의 응접 및 연회는 검소를 숭상하고 함부로 설비의 성대함을 자랑하는 것 같은 기분을 배제할 것
- 4) 손님 접대에 낭비하는 것을 폐지할 것
접대에 차를 내는 습관을 조성할 것(조선인 가정)

주(住)

- 1) 주거는 청결을 중시할 것

- 2) 간단한 동굴을 만들어 평소에는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방공 목적으로 충당할 것
- 3) 거실은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할 것
- 4) 조선 가옥의 행랑을 폐지할 것
- 5) 조선 가옥 건축의 기본 규격 제정 방안을 요망할 것

의례

- 1) 일가는 매일 아침 황거(皇居)를 요배하고 황실의 안태를 기원할 것
- 2) 축제일의 국기 게양은 물론 스스로 신사(神社) 신사(神祠)에 참배할 것
- 3)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낭독할 것
- 4) 혼례·장례는 검소하고 엄숙하게 해서 허식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기회에 혼례 피로연와 기타 각종 축연은 절대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고 또 매우 간소하게 할 것(조선인 측에서는 총독부 제정의 의례 준칙에 따를 것)
- 5) 모든 증답(贈答)·계절인사·역에서의 마중과 배웅 등에서 형식적인 것은 완전히 이를 폐지할 것
특히 형식적 □□의 증답은 이를 전부 폐지할 것
- 6) 조문용 화환 증정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폐지할 것
- 7) 사제·장유·주중 및 집회의 예의를 올바르게 할 것

사회풍조

- 1) 물자의 애용과 소비 절약
 - ① 폐품의 이용과 회수를 위해 각 지방에 폐품 회수 시설의 실행을 촉진할 것
 - ② 군수 관련품(면·종이·양모·고무·피혁·금속 등)은 물론 생활용품은 되도록 신제품을 보류하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할 것
 - ③ 음신(音信)은 절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엽서를 사용할 것
- 2) 사교상 관례의 개선
 - ① 연회에서
 - 오후 11시를 넘지 않을 것
 - 헌수(獻酬)의 전폐
 - 술 종류는 국산품에 한정할 것
 - ② 연두에는 각지 적당한 방법으로 명함 교환회 또는 호례회를 열어 동 소재지에서의 회례(廻禮) 및 연하장은 전폐할 것
- 3) 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 사용을 장려할 것
- 4) 실제 해가 있는 미신을 타파하도록 노력할 것
- 5) 시간을 장려할 것(특히 엄중한 사전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3.

연맹은 이상으로 제1단계 활동기에 들어서고 있었지만, 인격과 식견이 높은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 대장 각하를 총재로 추대하고 그 지도 아래 신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기하고 있다. 연맹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가와시마 총재 추대식 이후의 인사 훈사에서 이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맹을 만주국의 협화회(協和會)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맹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반도의 인텔리 계급들이 다소 불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와시마 총재는 “조선 민중이 이러한 전대 미증유의 비상시의 폭풍 속에서 가장 의의 있는 시련을 거쳐 오로지 황국신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이 행사에는 반도민이 진정한 일본 국민으로서 응비함으로써 비로소 부여되는, 세계의 대국민으로서의 가장 빛나는 영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도인’¹¹¹⁾은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짐멜이 말할 것처럼 권리 없는 의무는 비극이지만, 그러나 조선의 민중은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다할 때까지는 발언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음력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일조차 반도에서는 실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 일본 국민적 자각도 뒤쳐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적 영예도 단시일에 얻을 수 없음은 확실하다.

내선일체를 신시대의 이상으로서 파악한 신용 조선 민중은 관제라거나 학무국 전속이라고 하는 테마를 일소하고 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참가해서 노력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일본의 이상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도 민중에게 주어진 정신적 □□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연맹은 일개 국장이나 일개 과장·일개 대장의 일이기도 하지만, 폐하의 대어보(大御寶)인 우리 2300만 대중의 연맹이기도 하다는 점을 관민 모두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나는 가슴속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만사를 공론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일본의 국풍인 이상 연맹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를 하고 편달하고 충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전 : 玄永燮, 「朝鮮國民精神總動員運動發展」, 『東洋之光』 1939년 2월호, 86~91쪽〉

2) 국민정신운동과 우리의 임무

현영섭(玄永燮, 天野道夫)

1. 국민정신운동 의의

현하(現下)의 국민정신운동은 정신 즉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의미함으로 필자는 1923년 이후의 국민정신작흥운동과는 의의와 닮은 정동운동(精動運動)에 극한하여 그 운동의 의의, 조선에서의 운동경과와 우리들 ‘반도인’의 임무를 말하고자 한다.

111) 조선인.

정신운동은 국가총동원운동의 일익이다. 고로 정신운동을 이해하려면 국가총동원운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총동원운동은 국가총력전(이것의 최초의 제창자는 독일의 루덴도르프 장군이다)에 있어서 종합국력의 유감없는 발휘를 목표로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예비한 병력과 군수품 등을 파괴만하면 전투력은 상실되고 전쟁은 종말을 짓는 것이 보통이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는 병기종류의 증가, 그 구조 성능의 복잡정밀화, 군수물자소비량의 막대 등으로 국력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국가총력전의 성격은 제1차 구주대전(歐洲大戰)을 계기로 하여 명백하게 된 것이다. 전쟁당사국은 그 총력을 경도하여 전투력을 재생산하고 종합국(綜合國)을 걸고 적의 물질력 정신력을 소모함으로써 승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무기를 잡는 군대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공업, 농목축업자, 생산품운반자, 전장에 인원 군수품을 공급하는 일체의 기관, 총후의 국민정신긴장 승리에 대한 욕구 또는 확신이 전쟁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특히 정신적 요소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무력 경제력의 요소에 지지 아니하는 중대한 요소로서 국가총력전은 물질 양방면의 일체의 시설과 무력의 전부를 동원시킴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은 물론 그 후에도 각국은 비상시에 국력총력을 발휘하려고 국가의 조직을 제강화하기에 크게 노력하여 온 것이다.(예를 들면 핀란드(芬蘭)의 룯탁·스베르드 회의 조직, 독일의 SA, SS 러시아(露西亞)의 공산당조직 같은 것이다) 우리 일본은 세계의 유일한 군민일가(軍民一家)의 국체를 갖고 있음으로 국민의 통일은 비상시에 잘 발휘되나 서구 각국과 같은 비참한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국가총력집중을 위한 국민의 훈련은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나사변 발발이후 백만의 대병을 대륙에 보내고 다량의 물자를 소비하며 제3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까닭에 국가총동원운동을 일으켜서 국가총력전적 체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더욱 지나사변이 처리된다 하여도 구미의 압박을 배제하고 동양인의 동아를 건설하려면 국가총력전적 체제는 일층 더 강화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소련국경에서, 몽고지방에서, 중국의 서변에서 동양 침략을 음모하고 있으며 영국·미국·프랑스 역시 정치적 무력적 경제전 압박을 동양인에게 가하고 있다. 이 중대한 시국에 대처하려면 일본국민의 총력은 더욱 조직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총동원운동은 인적, 물질자원의 총동원과 정신적 총동원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다. 정신총동원이 없으면 인적물질적동원이 원만히 수행되지 아니하면 식량 기타생산품이 부족하면 정신총동원이 된다 해도 총력전수행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유물사관을 신봉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정동(精動)을 강조하여 정동 속에 물동(物動)을 포섭하여 국가총동원을 전개 달성시킨다.

2. 정동운동 경과와 전망

사변발발 후 제국정부는 사변의 심각한 성질을 인식하고 1937년 8월 24일 각의에서 국민정신총동운동이란 관민일체의 국민운동을 일으켜 거국일치(舉國一致), 견인지구(堅忍持久), 시간극복(時艱克服)¹¹²⁾, 황운부익(皇運扶翼)의 정신을 양양(昂揚)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10월 12일 정부의 외부국체인 정

동중앙연맹이 창립되었다.

조선은 제국의 일부로서 또 제국의 대륙병참기지로서 전시에 특수사명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지나사변 발발직후, 미나미(南) 총독은 관민과 간담하여 시국인식 시간극복을 종용한바 있었고 반도의 민중도 성전의 의의를 잘 인식하여 역사적 애국의 지계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애국운동은 자연발생적이지요, 통일집중한 세력이 아님으로 이것을 조직통일하여 반도동포의 국민의식, 국민정신을 배양, 고무,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정동조선연맹은 이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조선연맹은 관과 표리일체가 되어 정연한 조직하에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민간의 일대 기구이다. 1938년 6월 12일 아이하라(藍原) 학무국장, 김 사회과장(현 전남 내무부장), 시과영삼랑(矢鍋永三郎), 윤치호(尹致昊) 외 8명의 민간유력자의 간담에서 조선연맹의 설치가 결정되고 기후 관민일치 협력에 의하여 지나사변 1주년 기념일에 성대한 연맹발회식이 거행되었다.(조선연맹에 대하여는 조선연맹기관지 『총동원(總動員)』 창간호, 『문교(文教)의 조선(朝鮮)』 4월호, 『동양지광(東洋之光)』 제1권 제2호, 『海を越えて』 제2권 제9호, 『외지평론(外地評論)』 제2권 제12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조선연맹의 조직은 행정기관에 순응하여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에 있어서는 일본의 중앙연맹이나 만주의 협화회(協和會)보다도 철저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에 정당같은 존재가 없고 만주보다는 지적수준이 높은 까닭일 것이다. 조선연맹은 도연맹(13)과 전선(全鮮)을 구역으로 하고 전선에 세력이 있는 단체(조선문인협회, 조선농회와 같은 것 82)로 구성되었고, 도연맹은 부·군 도연맹과 단체 부군도연맹은 정동리(町洞里)연맹·읍면연맹·각종연맹·단체로 구성되고 읍면연맹은 정동리 부락연맹 각종연맹·단체로 구성되고 정·동·리·부락·각종연맹은 애국반으로 구성되고 애국반은 약10호로 구성되어 호주가 대표반원이 된다. 그러므로 반도 2천 3백만 민중이 전부 이 연맹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각종연맹이란 체신연맹, 장로교연맹, 천도교연맹과 같은 것으로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다인수를 포함하는 곳에서 각 소속인원으로써 구성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애국반원이지요 출동하면 공기단체(公共團體)의 각종연맹의 애국반원이 된다. 각종연맹은 국, 과, 부, 과, 계, 급 등을 적의 구분하여 애국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선의 정동리부락연맹 수는 6만 5,463, 동상(同上) 애국반수는 33만 4,495, 호 대표 애국반원수는 405만 4,720이다. 각종 연맹은 1만 720, 동상 애국반 수는 3만 5,709, 동상 애국반원 수는 109만 7,093이다. 조선연맹중앙본부에는 총재(천도대장 : 川島大將), 고문(8명), 참여(參與)(33명), 이사장, 이사(37명), 참사(參事)(107명), 평의원(단체 82, 개인 47), 사무국이 있다. 총독부내의 정동위원회, 정동간사회, 정동사무국과 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애국반에는 반장이 반원의 통솔, 전역(傳逆) 연락에 종사하고, 반원 또는 반장이 정신정동운동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려는 특지자(特志者)를 정동추진대원이라고 한다. 지원병 제대자, 중견청년수련소 수료자같은 사람이 추진대원이 된다.

1938년 7월에 조직된 조선연맹은 같은 해 9월에 9대강령과 21실천요목을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에 비상시국민생활개선기준을 결정하고 동년 12월 천도대장을 총재로 추대하여 정동실천에 노력해 왔다. 강령은 황국정신현양(皇國精神顯揚), 내선일체(內鮮一體)완성, 생활혁신, 전시경제정책에의 협력, 근로

112) 시간(時艱) : 그때의 어려움. 또는 시국의 어려움.

보국(勤勞報國), 생업보국, 충후후원, 방공방첩(防共防諜),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다. 내선일체를 근본목표로 할 것이라고 미나미 총독은 작년 5월 20일에 연맹역원에게 훈시한 일이 있다. 1940년도의 운동방침은 조국대정신의 앙양천명(昂揚闡明), 내선일체 완성의 촉진, 전시생활의 철저, 도시연맹운동의 강화, 운동능률의 증진, 국민총훈련의 유도다. 실천요목은 매일아침 궁성요배(宮城遙拜), 신사참배여행(神社參拜勵行), 조선(祖先)의 제사여행, 기회있는 대로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 낭송, 국기존중 계양의 여행, 국어생활여행, 비상시국민생활기준양식의 실행, 국산품애용, 철저소비절약과 저금려행, 국채응모권장, 자원애호, 근로보국대의 활약강화, 1일 1시간이상 근로증가의 여행, 농산어촌갱생 5개년 계획의 완전실행, 전가근로 응소군인의 환송영상병위문, 출정군인과 순국자유가족의 위문위령, 기업방조(幫助), 기회 있는 대로 순국자유령에 묵도, 유언비어삼가고 간첩경계, 방공방첩에 협력으로 결코 일반 비판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정동은 추상적이지 않다.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기준 속에는 행랑(行廊)폐지, 음력(陰曆)폐지, 헌수(獻酬)¹¹³⁾전폐 등 우리들이 꼭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작년의 한재이후 연맹은 한해극복운동에 전력을 경도하여 절미혼식운동을 장려하여 왔다.

3. 우리들은 어떻게 정동운동에 협력할 것인가

일본의 정동은 여러 가지로 비판이 있어서 정동본부를 내무성에 설치하여 정동중앙연맹을 강화하고 수상 자신이 회장이 되었다. 조선연맹은 일본보다도 조직적이므로 현재의 기구를 더욱 강화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강화책은 어디 있는가.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연맹은 국민의 자발적으로 발양되는 애국심으로만 발전한다. 관청이나 지도자가 명령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정동운동은 달성되지 아니한다. 경성에 조선인 상류가정에서 약간 절미혼식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재래의 관습도 있으나 명백히 국민적 사회적 의식이 없는 가정이요 이기적 개인주의이며 멸망에의 길을 걸 어갈 따름이다. 암취인(비밀매매), 매류(買溜 : 사두는 것), 차매(借賣) 등의 경제적 악행, 은진산업(殷賑産業)¹¹⁴⁾ 관계자, 광산경기에 취한 자들의 난행, 이와 같은 비국민적 반사회적 행동은 어디로 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악한들은 성전(聖戰)의 의의를 모르고 내선일체의 신성한 이상을 냉소하고 일본의 황도와 서구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혼동하는 자들이다. 우리 건전한 국민대중은 자기일신의 보전만 생각하고 이윤추구에 눈깔이 뒤집힌 일부 비국민, 협애한 민족적 감정에서 내선일체의 세계적 사명을 모르는 전(前)세기적 존재를 일소하고 정동강화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미키 키요시(三木清) 씨가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여 말하기를 일본국민은 더욱 긴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말하였다. 이 자유주의적 평론가에 이러한 말이 있다. 조선이 일본의 일부나 식민지 본국이 아니요 외지일망정 우리들이 국민 즉 황국신민인 점에는 한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부 일본인이 조선을 식민지라고 생각하듯이(그러한 일본인은 아직도 일본정신을 모르고 서구의 개인주의에 마취된 사람이다) 일부의 우리 조선민중은 황국신민의 자격을 가지고도 그것을 인식 아니하고 망국적 유태적

113) 잔 올림.

114) (국가의 정책에 편승한) 경기 좋은 산업.

(猶太的) 심경에서 취생몽사하고 있다. 우리가 신성한 사명을 가진 일본국민이라면 백만의 형제가 대륙에서 생명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이때에 공수방관(拱手傍觀)만하고 있을 수 있으랴. 매월 1일에 애국일이 오면 우리들은 정(町) 또는 부락연맹의 상회(常會), 또는 예회(例會)에 출석하여 비록 정(町)이사장이나 애국반장의 식견이 자기만 못하더라도 관대한 동포애로 포용하여 협조하고 애국반원의 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운동을 우리들이 멀리한 까닭에 자연 그것이 우리들과 떨어진 것 같이 되었으나 우리들이 거기에 접근하면 정동은 민중의 것이 된다. 관리가 힘쓸 관민일체의 정동인 까닭에 지금까지는 관청중심 같이 하였으나 만일 국민이 좀 더 자발적으로 협력하면 정동은 민중적 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금력이나 근로로, 혹은 금주금연이나 절주절연으로, 혹은 절미혼식대용식 실행으로, 혹은 애국일 상회출석으로, 인보상조(隣保相助)로 얼마든지 정동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관혼상제를 극히 간단히 함으로써, 상제(喪祭)에 곡(哭)을 폐함으로써, 묘지를 간단히 함으로써 1전(錢) 1장지(張紙) 1개 석양(石洋)의 절약으로서 국가정신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정동은 조선이 일본국민으로 양기(揚棄)¹¹⁵⁾되는 도정에 있어서 반드시 밟아야만 할 필연적과정이다. 이 혼련 없이는 일본국민의 자유와 행복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일본 보다 조선의 정동이 복잡다단하고 행사가 많더라도 우리들은 후진의 국민인 까닭에 꼭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용감하게 명랑하게 성실하게 정동의 요구하는 일체의 국민적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자.

〈출전 : 玄永燮(天野道夫), 「國民精神運動과 우리의 任務」, 『朝光』 第6卷 6號, 1940년 6월, 228~233쪽〉

115) 지양(止揚).

IV. 징병 · 징용 등
조선인 강제동원
지지 · 선전

1. 고향경(高鳳京)

1) 전시의 가정 -가정은 국가의 뿌리

가정이란 곳은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떠나 피곤함을 쉬일 수도 있고 단련 받는 몸과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물론 가정이란 것은 사생활을 하는 곳인 고로 밖에 나가서 하는 공생활(公生活)이 길던지 짧던지 기쁘던지 슬프던지 쓰라리던지 아프던지 이것을 전부 청산해 주고 새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얼른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은 숨은 가정에서 사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사람은 문밖에 나가서 공생활을 할 때에 구김없이 늠름하고 씩씩하게 할 수 있고 꼭 같은 재주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지만은 그의 가정에 공과가 있고 큰 근심을 빚어내는 그곳에서 사생활을 하는 자는 검은 구름이 물러난 태양과 같이 정말 광채를 나타내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고로 가정이란 곳은 위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얕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활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마치 아이들이 큰 나무가 울울창창하여 참으로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나무를 세워주는 큰 힘을 가진 뿌리가 땅 밑에 숨어서 뻗어 있는 것과 같고 크고 굉장한 집이 호기 있게 서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기초돌이 튼튼히 박혀 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가정이 흔들리는 곳에는 국가가 튼튼히 설수가 없고 사회가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을 맡은 자는 가정만을 맡을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처리함으로 국가에 큰 봉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시에 그러한 것이요, 전시에는 한층 더 나아가 오직 집안을 잘 하여서 간접으로 국가에 봉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위하여 봉공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힘쓰지 않으면 전시의 가정으로서의 만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에 직접 봉공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위선 쉬운 예를 들자면 집안에 적은 뜰이 있을 때에 그 뜰에 무엇을 심을까, 그 전 같으면 우리 집안 식구가 좋아하는 꽃이나 채소를 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 식구의 즐거움보다도 국가에서 요구되는 것을 한 폭이라도 심어서 그것이 크고 큰 국가, 바다에 비하여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못하지만 이것이 어느 구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이요, 뜻있는 가정이다.

또한 일가친척 가운데 큰 경사가 생겼다고 하자. 이전 같으면 무슨 물건을 사서 선물을 하여야 가장 뜻있고 그 당사자들이 기뻐할까 하는 표준에서 생각을 할 것이지만은 전시의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을까 하여 물자가 부족한데 음식이나 물건을 위하여 돈을 쓰는 대신에 그것으로 국채를 사서 선물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엄숙한 의무를 다하게 되며 피차에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상점에 나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에라도 이전 같으면 자기 집에 가장 필요한 쇠그릇을 구매하면 그만이지만은 이 전시에는 국가에서 국방에 필요할 터이니 쇠는 할 수 있는 대로 안 쓸 방법을 생각해서 나무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사들여 이 작은 정성이 각 가정이 합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하는

희망 속에 일종의 엄숙한 기쁨으로 가정을 운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은 아기를 기르는 곳이다. 아기는 우리 집에 귀둥이요, 우리 조상의 피를 받은 후손이라고 해서 대단히 소중히 여겨왔지만은 그 생각보다도 이 아기는 국가의 소중한 제2세 국민인고로 비록 내 집에 태어나서 내 손으로 기르기는 하지만은 국가의 보물을 맡았다가 국가에 바친다는 생각으로 귀하게 여겨 길러야 하는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놀듯이 나의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국가의 큰 재물을 내가 맡아 기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황송하며 영광스러운가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있는 정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하여 길러야만 참으로 가정을 맡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금번 조선에도 징병제도가 실시되게 되어 1944년부터는 황송하옵게도 우리 가정에서 황군을 낼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황군을 양육하는 가정과 그 가정을 맡은 주부는 참으로 엄숙한 자각을 가지고 국가의 큰 임무를 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군인의 어머니로서 가질 모든 자격을 갖추려면 일상생활의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다시 반성하여 부족한 부분은 다시 배워나가야 하겠으며 가정에 숨어있는 살림이나 맡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버리고 어디까지든지 발 벗고 나서서 국가와 하나가 되어 분투할 진심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남자는 직접 국방에 노력하고 여자는 총후의 봉공을 뜻있게 하여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집안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큰일인 동시에 이 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락에서 애국반에서 한 때에는 내 가정일과 같이 두 팔을 걷고 나서는 자가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가정과 개인이 꼭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맛보는 것은 이 전시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여 단맘으로 열심으로 자랑꺼리로 알고 실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출전 : 高鳳京, 『戰時의 家庭-가정은 국가의 뿌리』, 『半島의 光』 1942년 8월호, 27쪽〉

2) 징병 감사와 우리의 각오, 건군정신에 투철

1943년 8월 1일은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되는 날로서 우리나라 병제사(兵制史) 위에 영구히 기록할 만한 날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날을 맞이하는 거국의 감격 특히 순국의 지성에 불타는 2천 5백만 민중의 다년간 열망하던 바가 이루어진 무상의 광영에 감읍하는 날이다. 이 광영이야 말로 과거 34년 동안 역대 총독과 위정자 여러분이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반도 동포로 하여금 명실이 상부하는 황국신민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여 분투 선정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릴수록 광대무변하옵신 성은에 오로지 공구 감격할 뿐이다. 이왕비 전하께서 읊으신 노래와 같이 “당찬 가시로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옵시는 우리 임금님의 뜻 황송도 하시와라” 부르심을 받들어 황송하온 성은을 무엇으로 봉답하올까.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힘 다하여라. 임금님의 군사로 나서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아, 집안 사람들아. 임금위하여 참마음 하나로 일어서라 하노라”

저 앞에서 읊으신 이 뜻 깊은 노래를 맘 속에 깊이 새기어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이 귀한 출발점을

더럽히지 않도록 적성을 다 기울일 것 밖에 없다. 대동아 전쟁¹⁾에 혁혁한 전승은 두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숭고한 병역제가 시대의 힘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반도 동포도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태평양성전에 참가하는 것은 시□□□□이다. 그러나 용감무비 무적황군은 일조일석에 될 것이 결코 아니다. 조국이래 유구한 역사를 일관하여 우리 황국의 군대는 천황□□의 신병인 것이다. 그러므로 황국의 일원으로서 훌륭한 자격을 감당하려면 세계무비의 심원한 건군(建軍)의 뜻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제국 군인이 된 반도청년은 충절(忠節), 예의(禮義), 무용(武勇), 신의(信義), 질소(質素) 이 5개조의 성훈(聖訓)을 지켜 □□□□를 바쳐야 할 것이다.

〈출전 : 高鳳京, 「徵兵感謝와 우리의 覺悟, 建軍精神에 透徹」, 『매일신보』, 1943년 8월 5일〉

2. 김동준(金東準)

1) 3천년래의 숙원

(경남지사발) 징병제도가 조선에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이 제도의 실시를 삼십년간을 두고 주장해 오던 부산의 선각자인 경남도회의원 김동준 씨는 왕방한 기자에게 “당연한 일이다, 도리어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은 감상을 말한다.

나는 ‘일한합병’이래 무엇보다도 조선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를 주장했다. 이것은 이 교육 보급을 기하려 징병령 실시를 염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국민교육은 지지부진하였다. 나는 1920년 이래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도의 전제로서 허망하여 왔는데 다행히 1937년도부터 그 실시를 본 것은 우리의 희망이 통한 것으로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얼마 전 동경에 갔을 때 어떤 유지와 조선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빨리 조선에 징병령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하였으며 어제 또한 어느 좌석에서 징병령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우연히 나의 삼십년 후의 숙망이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조선 청년의 기분도 심기 일신되어 명량하게 된다고 확신해 마지않는다. 이 징병실시에는 교육의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조선의 국민교육 보급은 남자 50퍼센트에 불과하므로 금후에는 빨리 국민에 교육을 보급해 달라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조선 청년은 누구나 교육도 받고 이번 전쟁에 용약(勇躍) 나서도록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다.

〈출전 : 金東準, 「三千年來의 宿願」, 『매일신보』, 1942년 5월 11일〉

1) 1941년 태평양전쟁을 말함. 이하 태평양 전쟁으로 고침.

3. 김두정(金斗禎)

1) 징병제 실시와 반도청년의 연성(鍊成)

수세기 동안 영국·미국·네덜란드 등의 질곡 아래 신음하는 대동아 10억 민생을 해방하고 대동아인의 대동아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 내지의 형제는 태평양을 피로 물들이고 열대의 정글과 북극의 빙산에 뼈를 묻으며 성스러운 대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사상 미증유의 중대시기에 직면하여 황국 일본의 거대한 일부인 조선반도의 2,400만 황민(皇民), 특히 뜻있는 조선반도의 청장년층은 타오르는 열혈(熱血)과 끓어오르는 의분(義憤)을 참지 못하고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大君) 곁에서 죽어도 후회하지는 않으리”를 연호하면서 진정 추악한 것을 막는 방패로서 성전에 참가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에, 역시나 조선반도 2,400만의 적성(赤誠)에 부응해 1942년 5월 8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역사적인 대결정이 발표되었다. 그 순간 조선의 방방곡곡 격정적인 감격의 파도, 환희로 넘쳐나는 만세소리, 실로 반도통치 30여 년을 통한 획기적 성사(盛事)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1억 국민들 모두 감명하고 있는 바이다.

이로서 반도청년의 충성과 넘쳐나는 염원은 보답을 받게 되었다. 인류사를 창조하는 쇼와유신(昭和維新)의 번영의 시대에 황국에서 생을 얻은 일본남아로서 순충보국(殉忠報國)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사내다운 봉공(奉公)을 할 수 있다. 참으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다.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충렬(忠烈)한 전사(戰死)를 해서 그 충혈의골(忠血義骨)은 대동아의 기초로서 영원히 살아가고, 그 충훈 또한 야스쿠니(靖國)의 영령으로서 수천 년 동안 황국을 지킨다. 실로 남아의 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청년에 약동하는 이 충용의 일념은 매년 증가하는 지원병 응모자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1942년도에는 채용자 4,500명에 대해 지원자 수 25만 명을 뛰어넘는 성황이었다. 조선반도의 2,400만 황민의 적성은 때로는 지원병을 한 가구당 1명 보내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때로는 “황민화 축진을 위해 국민적 연성(鍊成)으로서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때로는 황국이 임전체제(臨戰體制)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미국·영국·네덜란드와 그야말로 전쟁을 벌여 황국의 흥패를 걸고 싸워야 하는 때에, 아직 조선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정자의 엄청난 불민(不敏)이다”라며 개탄하고, 때로는 “해군에도 조선반도 지원병을 채용하라”라고 외치고, 때로는 “조선반도에도 유년학교나 사관학교를 설치하라”라며 절규하고, 때로는 “지원병 훈련소를 증설하라”라고 제창하는 등 대동아전쟁 발발 직전의 조선반도 민중의 목소리는 애국적 적성의 불꽃이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400기 이상의 비행기 헌납, 국방헌금, 위문봉 헌납 등 다양한 군사후원의 형태로 나타나 불타오르는 애국적 적성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반도 황민 대부분의 소망은 마침내 달성되었다. 지원병 훈련소는 증설되었고, 수많은 반도청년은 해군 군속으로서 채용되었다. 또 수많은 반도청년은 미국인과 영국인 포로 감시원으로서 채용되는 동시에, 미래 영겁의 역사를 장식할 징병제 실시가 마침내 결정되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는 마침내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반도청년이 모두 국방의 제일선에 나서서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산

화할 때가 바로 내선일체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실로 반도청년 스스로 피를 흘리고 순충보국하지 않고 입으로만 외쳐서는 내선일체를 완성할 수 없다. 반도청년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전과를 흠치는 것은 영구히 조선반도의 치욕이고, 반도청년의 면목 문제이다. 징병제 실시는 반도청년의 이러한 번뇌를 말끔히 사라지게 했다는 데 절대적인 의의가 있다.

황국의 군대는 천황이 친히 이끄시는 신병(神兵)이며, 7년 보국으로 천황의 은혜에 도답함으로써 천양무궁(天壤無窮)한 황운을 부익(扶翼)하는 것이 국체(國體)에서 발로된 바의 병역의 근본사상이지 결코 구미적인 국방의무론 따위가 아니다. 외국식의 의무관에서 보자면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울 만큼 싸웠다. 즉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니 항복하겠다”며 “명예로운 포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은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체에 연원(淵源)하여 군신일체(君臣一體)·국민개병(國民皆兵)·세세천황(世世天皇)은 대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시고, 신민은 소집되어 폐하의 수족이 되고 신명을 바쳐 국방의 대사를 완수하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자자손손 대를 이어 최후까지 싸워 이기는 신성하고 숭고한 국민의 순국의 정신이다. 반도청년은 특히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이난코(大楠公)·쇼난코(小楠公)²⁾를 비롯해 폭탄 3용사,³⁾ 9군신⁴⁾에 이르기까지 웃으며 나라에 목숨을 바친 큰 정신을 뺏속 깊이 새겨야 한다. 이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반도청년 연성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징병제 실시의 결정은 병합 이래의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성령(聖慮)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선반도 2,400만 황민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중추적 추진력으로서 제일선에 참가하도록 하는 영광을 주었으며, 만민평등하게 폐하의 수족으로서 국방에 임할 수 있는 영광을 주는 바의 일시동인의 성지(聖旨)가 있었다. 또 군대생활도 일시동인이며, 군대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대 가족이다. 서로 신뢰하고 도우면서 실제 부자지간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정으로 결합한 결합체이고, 군대에 들어가는 자도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자도 모두 한없는 영광으로 알고 순응하여, 만에 하나 지원병제도 실시 초기에 일부 있었던 추태가 반도청년층은 물론 그 부모 가족에 있다면 이는 조선반도 2,400만의 치욕이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연대책임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자계(自戒)하는 동시에 우리는 일시동인의 영예를 서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청년에게 이 일시동인의 감격을 주는 것이 그 연성의 두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는 종래 지원병 훈련소의 경험에서 보건대 반도청년은 책임감과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당국자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반도청년의 생활에는 무사도의 정신이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옛날의 무사가 한 번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를 지킨다든가, 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고난과 결핍을 견디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이는 사선을 뛰어넘음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행적(行的) 수련이나 유도·

2) 다이난코(大楠公)는 가마쿠라 시대 말기의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별칭이고, 쇼난코(小楠公)는 그의 아들 구스노키 마사쓰라(楠木正行)의 별칭.

3) 상하이사변(上海事變) 중인 1932년 2월 22일 중국의 18로군(路軍)이 상하이 교외에 구축한 진지에 폭탄을 들고 돌격해 전사한 세 명의 병사들.

4) 태평양전쟁 중 하와이 해전(진주만공격)에서 전사한 9명의 해군 병사들.

검도·총검술 등을 조선 전체에 보급함으로써, 또 가능하다면 사선을 왕래하는 맹훈련으로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 연성의 제3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는 규율을 존중하는 곳이고, 종래 무통제적이고 무질서적인 생활을 하는 반도청년들에게 규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군율에 따라 상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는 입대 전의 청년들에 대한 군사교련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연성되어야 한다. 이것에 네 번째 목표이다.

의무교육은 징병제 실시 전에 시행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시국의 추이는 더 이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의무교육제도 실시 전에 징병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청년층도 징병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토민군(土民軍)이 뒤섞여 국방군을 구성한 경우도 있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잡군을 통솔해서 큰 승리를 거둔 명장도 있다. 조선반도의 징병제 실시에서도 국어에 능통하건 능통하지 않건 간에 소집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황국신민으로서 특히 대동아의 지도자인 일본국민 자신이 일본어를 할 수 없다면 말레이인이나 자바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또 국어를 모르는 자가 입대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무나 훈련에 큰 불편이 생겨 동료들 보기도 부끄러워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폐하의 수족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국어를 모른다면 폐하의 뜻에 충분히 따를 수 없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된다.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반도청년은 이런 기회에 국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 국어를 상용함으로써 일본적인 사상과 감정을 체득해야 한다. 한편으로 조선의 모든 단체나 부락마다 국어 강습회를 열어 국어의 습득 상용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 연성의 다섯 번째 목표이다.

근대의 전쟁은 영혼과 영혼의 싸움인 동시에 모든 과학병기를 구사해 싸우는 과학전이기도 하다. 반도청년은 자신의 직장 환경과 시간이 허용하는 한 자전거·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운전이나 기타 갖가지 기계의 조종과 수리·제작 등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과학을 습득해야 한다. 이 기계화 국방훈련이 반도청년 연성의 여섯 번째 목표이다.

군대는 일본식 생활의 원리 위에 모든 근대적 설비를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청년은 생활의 일본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기거·식사에서부터 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지의 풍습을 익히고 청결과 정돈이나 생활의 간소화 등에 평소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청년들을 근대적 생활과 일본적 풍습으로 순치시키는 것이 연성의 일곱 번째 목표이다.

청년은 인생에서 발육·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 신체의 단련이나 체육의 향상을 크게 도모해 능히 간난과 고난에 견뎌 그 왕성한 체력과 기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의 체위 향상이 연성의 여덟 번째 목표이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나는 지금은 청년의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늘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는 융흥하고, 청년을 무시하고 청년을 학대하는 국가는 망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세간에서는 청년을 제2

5) 일본어.

의 국민이라 칭하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청년이야말로 실로 제1의 국민이며 국가의 중추이다. 보라! 제일선에 서서 용전분투(勇戰奮鬪)하고 위대한 훈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청년이 아닌가. 모든 직장에서 생산 확충에 분골쇄신하고 있는 것도 청년이 아니던가. 저 메이지유신의 위업을 이룬 것도 존황양이(尊皇攘夷)의 신념에 불타는 청년의 힘이다.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이상을 실현하려는 쇼와유신 또한 청년의 힘에 크게 기대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도 뭇솔리니도 청년을 사랑했기에 국가를 부침의 경지에서 구해내 오늘날의 융흥을 가져올 수 있었다. 심지어 저 스탈린조차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반도인(半島人)'⁶⁾의 노인들 중에는 청년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노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글우글 존재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러한 무리들은 “청년은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다”, “청년은 한때 사상 과오도 저지른 사례도 있고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을 말한다. 단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40~50세까지 내버려두면 결국 청년의 특징을 거세당한 채로 노인이 되고 만다. 경험이 없으면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을 맡겨야 한다. 또 애국적 지성을 다하는 데 경력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인에 관한 한 사상적 과오는 결코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은 청년층은 사상적으로도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었다. 실제로 청년을 의심하는 노인네들보다 더 애국적이다. 어쨌거나 한때 청년을 무시하는 풍습이 구체제적·보수적 무리로 인해 지배적이었던 관제로 반도청년은 무기력했고 훈련이 없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버릇 이외에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징병제 실시라는 역사상 공전의 대사를 앞두고 뜻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우려하는 일은 이것이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실로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나서야 하는 것은 청년 이외에는 없지 않은가. 청년들에게 되도록 많은 일을 부여해 경험을 쌓아 대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청년 연성의 아홉 번째 목표이다. 청년의 연성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 아니다. 청년 연성소나 다양한 도장에서 연성하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의 연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 주는 감화는 가정교육이 실로 큰 역할을 한다. 충신은 반드시 효행의 문에서 나온다. 가정의 주부는 충용미담이나 격려의 말로 늘 자제들을 분발케 하고, 자제들과 함께 가미타나(神棚)에 예배를 하고, 라디오에서 야스쿠니신사의 보도가 나오면 반드시 아이들을 불러 함께 듣는 등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 아이들에게 청소나 논밭을 돌보는 일을 비롯해 화장실 청소도 시켜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전장 생활을 가정으로 옮겨 제일선 장병들과 노고를 함께 하는 등의 마음가짐으로 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어릴 적부터 가정적 훈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연성의 열 번째 목표이다.

이러한 청년 연성의 근본사상은 일본정신이며, 근본적 훈련은 일본적 연성이다. 반도청년을 모두 폐하의 수족으로서 호국흥아(護國興亞)의 성업에 참가시켜 충렬한 훈공을 세우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은 일본정신의 체득을 통한 일본적 종합 연성이다.

반도 동포도 일본 내지의 동포도 모두 하나같이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갖고 있으므로 충성으로 군국(君國)에 보답하는 것 또한 일본 내지 동포와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반도 2,400만 동포는 폐하의 방패로서 영광스러운 국방의 중임을 맡을 수 있는 동시에 대동아 건설, 나아가 세계재편성의 지도

6) 조선인.

자로서 세계에 응비·활보할 수 있는 정신·소질·실력을 충분히 함양·연성하고, 순충보국의 정신으로 오로지 천양무궁한 황운부익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金斗禎(金子斗禎), 「徵兵制實施と半島青年の鍊成」, 『東洋之光』 第5卷 2號, 1943년 3월, 8~14쪽〉

2) 『반도황민생활물어(半島皇民生活物語)』(1943)

조선사상국방협회(朝鮮思想國防協會) 금자두정(金子斗禎)⁷⁾

서문

반도는 더 이상 옛날의 반도가 아니다. 2,400만 반도황민(半島皇民)은 도의조선(道義朝鮮) 건설이라는 큰 기치 아래 보무당당히 힘찬 총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중핵체인 대일본의 거대한 일부로서의 반도의 황국신민적(皇國臣民的) 연성(鍊成)도 결전체제하의 국민총력운동도 생산전력의 필승적 증강도 모두 국민도의(國民道義)의 진작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하고 또 여기에 박차를 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리하여 신도(臣道)를 생활면에서 실천하면서 오로지 천양무궁한 황운부익(皇運扶翼)에 매진하고 있는 반도신민의 진지한 기백과 실천을 더욱 크게 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선진 일본 내지(內地) 동포들의 책무인 동시에 반도 동포들의 순충(殉忠)의 분투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루가 100년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현 시국하에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적성(赤誠)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반성함으로써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1억1심1체(一億一心一體)를 염원하는 인사들이 부심고려(腐心苦慮)하는 바이다. 졸문이 다행히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호의 각위(各位)의 비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졸저의 간행에 있어서 조선사상국방협회 주사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郎) 선생 및 노리타케 가즈오(則武三雄) 형의 간독한 지도를 입은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1943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2주년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

저자 씀

7) 김두정(金斗禎)의 창씨명.

반도황민생활물어(物語)⁸⁾

목차

1. 도의적 국민 금도(襟度)
2. 신도(臣道)의 생활면에서의 실천
3. 전시하의 국민생활
4. 생활에 자연을 더하라
5. 먼저 나부터 생활의 재건
6. 건민강병(健民強兵)과 근로
7. 국어생활은 영남(嶺南) 부인에게 배워라
8. 건투를 계속하는 호남지방민
9. 약진 함북의 모습
10. 함남의 강점
11. 수수하게 나아가는 충청
12. 평화향(平和鄕)의 황해도
13. 경기의 군부(郡部)도 진군⁹⁾하고 있다
14. 탈피하는 서선(西鮮) 지방
15. 국민개병(國民皆兵)과 반도청년의 연성
16. 의무교육 실시와 교육령 개정
17. 국민학교는 '폐하의 적자' 연성도장
18. 식량증산과 황국농민도(皇國農民道)
19. 황도문화 건설의 족적
20. 대동아문화전과 반도
21. 문화와 사상의 관련성
22. 대동아사상전과 사상국방
23. 심각한 반성에서 출발
24. 승조필근(承詔必謹)의 정신
25. 일본정신의 심연은 다카야마하라(高天原) 정신
26. 성지순례와 실천적 수련
27. 금강산 미소기(禊) 연성
28. 성지의 청소 봉사에 노력하라
29. 북방권 전진병참기지 반도의 위용

8) 물어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9) 목차에는 '진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진군'으로 되어 있다. '진군'으로 통일함.

30. 한국병합 30년의 회고
31. 동문동조(同文同祖) 동(同) 운명의 내지와 조선
32. 대동아전쟁과 우리의 각오
33. 흥아건설에 있어서 반도의 사명
34. 반도황민의 정신적 수련의 완성

1. 도의적 국민 금도(襟度)

역사상空前絶後(空前絶後)의 대성전·대성업의 목결 달성을 위해 거국 총진군체제를 더욱 다져야 하는데, 그 요체는 우리 1억 적자(赤子)들이 '상어일인(上御一人)'¹⁰⁾에게 귀일하여 대가족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 1억 국민은 당파적·계급적·민족적 성격의 일체의 장벽을 타파·일소하여 때로는 부자지간의 정과 사랑으로, 때로는 형제지간의 느낌으로 융합·일체가 되는 것이다. 내선일체(內鮮一體)도 결국에는 이것의 구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대정신에 기초하여 늘 대가족의 요소를 이루는 개성의 완성, 즉 신민(臣民)으로서의 인격 완성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동아의 영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대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신에 눈뜨고 폐하의 적자라는 자각을 심화시키고 순충보국(殉忠報國)하며, 가정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부부는 서로 화합”함으로써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형과 아우가 되어 국가의 말초세포인 가정의 즐거운 건성을 도모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벗과는 신의로 대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서로 신우협력(信憂協力)함으로써 동양의 도의적인 미풍양속을 유감없이 현현하는 품성을 도야하는 것이 도의적 국민으로서의 임무라고 본다.

우리는 국가 100년의 대계와 동아 1000년의 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이러한 정신임을 특히 유념하고 또 만방(萬邦)으로 하여금 각자 그 직분을 갖도록 하고, 억조(億兆)로 하여금 각자 안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건국의 대정신에 기초하여 대국민으로서의 금도(襟度)와 실력으로 세계의 신질서 건설을 능히 요리할 수 있도록 수양·연성(鍊成)에 노력해야 한다.

2. 신도(臣道)의 생활면에서의 실천

근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 혹은 청소를 하고 궁성을 요배하고 정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묵념을 올리는 아름다운 사실을 목격한다. 전차 안에서든 보행 중이든 작업이나 근무 중이든 간에 어떤 장소에서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게 되었다. 또 추운 날도 비오는 날도, 조선옷을 그대로 입고 ‘국어’¹¹⁾에도 능통하지 않은 ‘반도인(半島人)’¹²⁾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선신궁이나 신

10) 천황.

11) 일본어.

사(神社)·신사(神祠)에 참배하는 존엄한 모습을 보고는 절로 일종의 엄숙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나는 성지순례를 했을 때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신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전차 안에 있는 사람도 모두 직립부동의 자세로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호국영령에 대해 경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선에서도 조선 전체가 신사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예배를 하고 지나가게 되었다. 신궁·신사에 바치는 국민적 존엄성은 청정무구한 조국애의 표현이다.

백의(白衣)의 용사가 지나갈 때는 자발적으로 모자를 벗어 경례하는 인사도 간혹 볼 수 있다. 백의의 용사에 대한 경의와 감사가 넘친다. 우리는 늘 그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극장이나 운동장 등에 백의의 용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경례 혹은 박수로 환영해야 한다.

반도에서 이러한 존귀한 느낌이 2,400만 황민의 가슴속에 공통적으로 솟구쳐야 비로소 자식이나 남편을 천황의 방패¹³⁾로서 보다 많은 흥아호국(興亞護國)의 국방전선에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국방헌금이나 위문품 헌납, 또 출정 장병에 대한 원호사업도 시국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도황민이 모두 일어나면서 거리에는 전발(電髮)¹⁴⁾·귀금속·장신구 등을 걸치고 귀신 같이 화장을 한 가련한 동포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내가 일본 내지를 여행했을 때는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부녀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장에서 군수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논밭에서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귀한 모습의 그녀들을, 또 여학교에서 조리를 신고 군사교련을 하고 있는 늠름한 모습의 그녀들을 보고 그 건실한 모습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와 같이 부녀자들이 국민총력운동의 추진력이 되어야 비로소 제일선 장병들을 안심시키고 자녀들을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감화하고 육성할 수 있다. 부녀자들이 극장이나 다방에만 출입하고 사치와 유행함으로 흘러서는 사회의 교풍은커녕 일가(一家)의 건설화목(建設和睦)조차 기대할 수 없다. 허물며 천황의 방패가 되어야 할 남자가 그러한 나약한 행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황민으로서의 일대 치욕이다. 함께 손을 잡고 일체의 사생활에서의 폐풍을 일소하고 결전국민생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체제를 소리 높여 외치게 된 이후 우리 생활양식도 잇따라 변했고 식량도 모두 배급을 받게 되었다. 기타 목면이나 사탕·고무신 등도 배급을 받고 있다. 일체의 일용품에는 공정가격·협정가격·정지가격이 붙어 있다. 그 덕분에 일용품의 국민적 배급에 비로소 불안이 일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흉작 지방이 있어도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때처럼 부정한 상인이거나 시국에 편승하려는 무자각 부자 무리들이 암거래나 매점매석을 그만두게 되면서 국민배급의 원활을 방해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일선 장병들이 피땀 흘려 조국옹호를 위해 고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뒤에 숨어서 사복(私服) 채우기 위해 살금살금 총후(銃後)를 교란하는 경제적 제5열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황민적 자각 아래 이를 감시하고 또 숙정(肅正)하여 국민생활의 명랑을 기해야 한다.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물심양면, 국민 각자는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직역(職域)을 통해 신도(臣道) 실

12) 조선인.

13) 시코노미타테(醜の御楯).

14) 전기로 머리를 지지는 일. 파마 머리를 뜻함.

천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반도에서는 2,400만 황민의 자비로운 어버이로서 존경받고 있는 고이소(小磯) 총독각하가 직접 제일선에 서서 열성과 사랑과 힘으로 민중을 지도하고 또 진두지휘하시고 있음은 우리 모두 황송하고 찬탄해마지 않는 바이다. 우리 반도황민은 영예로운 흥아유신(興亞維新)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즉응한 힘을 기르고 또 이를 무제한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이 세계사적 대창조에 힘차게 부월(斧鉞)을 들고 참여할 수 없다. 국민적 총결기의 근본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체제의 근본사상에 철저히 못한 경향이 다소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독일·이탈리아의 전체주의의 모방이라든가, 혹은 통제경제에서는 소련을 흉내 내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다. 어쩌면 형태적으로는 다소 비슷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각자 형모가 비슷하고 성질과 영혼은 다르게 마련이다. 소련은 급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약 20여 년간 국가의 사상으로 삼아 왔고, 독일은 독일정신에 일본의 황실 중심 사상을 받아들여 나치스 정신을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일본의 백호대(白虎隊)¹⁵⁾나 적수의사(赤穂義士)¹⁶⁾의 정신에서 파쇼 혼을 만들었고, 둘 다 20여 년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다. 결코 우리나라가 그들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독일이야말로 일본정신을 배워서 국가의 위기를 부침 지경에서 구제한 것이다.

한때 구미사상에 물든 적은 있지만 오늘날 황국 일본에서의 신체제는 당당히 3000년의 건국정신을 근본적 사상으로 삼고 있다. 건국정신은 간나가라(惟神)¹⁷⁾의 대도(大道)이고 일본정신이며 황도(皇道)이다. 야마토(大和)¹⁸⁾의 사상으로서 현현되어 있다. 신체제하에서는 건국정신을 무제한 선양하는 것이 신도(臣道) 실천이다. 즉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 관념으로 황국에 봉공하고 익찬(翼贊)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식자(徒食者)나 유한층(遊閑層)까지 총동원해서 근로보국대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모두 폐하의 적자이다. 우리 황국신민은 신체발부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생산기관, 기타 일체를 '상어일인(上御一人)'¹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총후에서는 모든 노력을 국가에 바치고 모든 생산기관을 최고도로 국가적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제일선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으로, 곧 총을 잡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망치질을 할 때도 행들을 돌릴 때도 이런 마음가짐은 항상 가슴속 깊이 담고 있어야 한다.

농촌에서 황도낙토(皇道樂土)를 건설하는 옥토개발자는 어떨까? '상어일인'으로부터 받은 농토이다. 지주도 자작농도 소작인도 폐하의 백성이다. 황국 농민도(農民道)에 기초하여 가래질과 곡괭이질을 할 때도, 씨앗을 뿌릴 때나 잡초를 제거하고 벼를 벨 때도 총혼을 다해 일하고, 한 톨의 쌀이라도 한 뿌리

15) 1868년 보신전쟁(戊辰戰爭) 당시 아이즈 번(會津藩)이 16~17세의 번사(藩士) 자제들로 조직한 소년결사대. 관군과의 싸움에서 패해 후퇴했을 때 멀리 성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성이 함락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는 20명이 활복함.

16) '아코우기시' 혹은 '아카호기시'라 불리는 이들은 1703년 주군의 치욕을 되갚기 위해 적을 친 아카호 번(赤穂藩)의 무사 47명을 가리킨다. 이듬해에 막부의 명령으로 모두 활복함.

17) 신대(神代).

18) 일본.

19) '위에 계시는 한 사람'이니 일본왕을 의미한다.

의 야채라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심혼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토는 더욱 훌륭하게 개척되고 농촌도 글자 그대로 낙토가 될 것이다. 쌀을 만든다고 해서 포식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절약하면서 쌀을 황국에 바쳐 널리 흥아의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농민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기여하는 까닭이고 농원을 중심으로 한 신도 실천이다.

상인은 국가의 배급기관을 다루는 전사이다. '상어일인'의 성려를 봉체(奉體)하고 사리사욕을 떠나 받들고 배급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곧 신도 실천이다.

교육자는 단지 직업적으로 교단에 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수많은 아동 생도들을 황송하게도 폐하의 적자로서 교육하는 바에 그 신성한 사명이 있다. 최근 교육자들 중에 일부에는 도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시대에 한 걸음 뒤쳐진 감도 없지 않은데, 그러나 끊임없는 교육자의 재연성(再鍊成)과 노력으로 학원도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일반 문화인이나 사상인은 교화·학술·문학·미술·음악·영화·연극·연예·라디오·출판 등 모든 부분을 통해 황도문화를 건설하고 황도사상을 선양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각자 '상어일인'에게 귀일하는 것이 곧 문화면을 통한 신도 실천이자 국민의 신체제적 생활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물심양면에 걸친 생활에 신도를 실천하는 것이 신체제의 근본 사상이자 국민 각자가 모든 직역을 통해 천황에게 귀일할 때, 그 일역의 총력어야말로 흥아유신을 통한 세계 신질서 건설의 원동력이 되며, 동시에 내선일체도 더욱 완성 영역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3. 전시하의 국민생활

총후의 국민생활을 보면 반도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곧 전시에 입각한 의식주의 간소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더 긴장된 전시 의식 아래 결전생활의 확립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부류 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의(衣)'의 방면이다. 국민복과 몸빼는 상당히 보급되었지만, 아직 화려한 의상이나 백의(白衣)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대용 섬유(staple fiber)로 만든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그 내구성 문제 때문이지만, 전시이기에 더욱 대용 섬유를 애용한다는 의식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는 부인들의 구식 세탁법의 개선이 불가결하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스테이플 섬유의 약점을 조정할 수 있고 아울러 그것보다 낡은 의류를 정리·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또한 최근 도시에서 계타(下駄), 농촌에서는 조리(草履)를 애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기쁜 현상이지만, 앞으로도 가능한 계타와 조리를 애용하고 고무와 피혁을 군수방면에 더 많이 조달한다는 배려를 하기를 바란다.

둘째로 '식(食)'의 방면이다. 이는 향토식·혼식·대용식이 보급되었고 지방을 돌며 보더라도 곳에 따라서는 콩을 섞거나 밤을 섞고 혹은 옥수수를 섞어서 먹는 등 철저한 구석이 있다. 또 감자를 대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산과 들판의 먹을 수 있는 풀을 채집해서 대용식 연구를 할 여지가 있다. 영양 본위의 국민적 대용식은 우리 각자의 노력에 의해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충분한 궁리가 지금 중요하다.

일전에 쇠그릇 헌납운동이 조선 전체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비위생적인 쇠그릇을 내던지고 도기나 나무 식기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옛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기량을 민에 진흥에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주(住)’의 방면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재료 부족 등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주택영단(住宅營團)의 역할이 크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먼저 온돌을 줄이고 다다미를 많이 사용하여 아궁이를 개량하는 일이 연료자원의 애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쪽과 같이 추운 지방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부 이남은 온돌이 아니더라도 탕파(湯婆)로도 충분할 것이고, 도리어 온돌의 차가운, 이른바 ‘냉돌’은 나무 바닥보다 못하다. 농촌에서는 일본 내지의 농가식으로 돛자리를 두껍게 까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취사장을 더 좁게 해서 위생적으로 하는 동시에 창문을 많이 만들어 통풍과 채광에 유의하고, 붙박이 장롱을 만들고 욕실을 설치하는 것은 온돌의 제한과 더불어 반도 주택의 합리적 개선의 요결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돈을 들여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 똑같은 경비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의식주의 생활을 합리화하고 국가의 자원을 애호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생활의 간소화와 쇠신을 도모한다. 이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에 있어서 이익임은 물론이다. 아울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일본 내지와 조선의 생활양식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일에 항상 유의해서 결전생활운동과 결부시켜 우리 생활상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 우리 반도 황민은 이 기회에 단호하게 단행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 생활은 늘 장래에 대한 대비를 요하기 때문에 가계부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에 힘쓰며 사치품·□제품·불요불급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생활을 검소하게 하여 공채를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수품 배급에서도 국민 모두 일하는 데 있어서도 방공방첩 활동에서도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행동에서도, 우리는 늘 질서 있는 행동으로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하나 발밑에서부터 다지면서 대동아 신질서의 건설, 나아가 세계 신질서의 건설에 까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결전국민생활의 확립은 무엇보다 국민의 애국심과 도의적 관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은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비로소 황민으로서의 면목을 다 할 수 있다.

4. 생활에 자연을 더하라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일상생활로 옮겼는가를 생각한다. 일본 국민은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인데, 우리 반도만은 그동안 국토 안에서조차 자연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

초목이 되살아나는 봄을 맞이해도 황토색 산허리를 바라보고 초목 한 그루 없는 마당, 분재 하나 없

는 반도인의 가정을 보고 사람들의 메마른 표정을 생각한다. 흰옷의 소박함은 있어도 자연에 대한 사랑과 윤기는 부족하다.

일본의 가정은 완전히 생활의 예술이고 노동의 피로에 대한 위안처이기도 하다. 자연을 사랑하는 일본 내지 동포의 심정은 자연을 그대로 정원에 옮겨 또 화분에 옮겨 비록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애육한다. 이 상냥한 기질은 필연적으로 모든 피로를 일소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윤기와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는 가정 내의 화목과 즐거움, 인보상조(隣保相助)가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친화까지 기르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향토애와 조국애도 배양한다. 그런데 반도는 자연애가 부족한 풍습과 대자연에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온돌로 인해 과거에는 사막처럼 되고 있었다. 산촌에서, 아니 그보다 더 황량한 인심에서 각 가정에서의 살풍경 같은 상황에서 자연애의 결여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고 제창한다. 공원의 수목이나 가로수를 자르는 일부터 먼저 그만두자. 그리고 산이나 들판을 녹화하는 동시에 단호하게 온돌의 연료에 나무 사용을 최저한으로 하고 무연탄·연탄을 때는 개량온돌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한 평 원예(園藝)로 공터를 최대한 녹색으로 둘러싸고 마당 구석에 야채나 생활에 윤기를 주는 초목을 심도록 하자. 나는 전문적인 조원(造園)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연애를 우리 반도에 진심으로 주창하고 싶은 것이다. 경성과 같이 손바닥 같은 좁은 마당밖에 가질 수 없는 도시의 서민들이라도 정원을 즐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뒷마루 원예·감귤상자 원예·질그릇 원예·빨래 건조장 원예·선반 원예 등 얼마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은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생활을 둘러싼 일체의 도구와 기구는 직접 자연물이나 소박한 가공품이다. 고전에 따르면 자연은 곧 신이고 신은 위이고 어떤 존귀함을 느끼게 한다. 황실을 중심으로 일대 가족이 면면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구하게 조국을 발전시켜 온 우리 황국 일본의 신민은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하고 진심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원이라는 하나의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양상에서도 수많은 예가 있다. 한 마리의 새·한 포기의 풀·한 덩어리의 돌, 그러한 작은 것을 회화·조각 등의 수단을 빌려 생활선상에 현시한 것을 보면, 모두 단순한 외관상의 자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연의 형체에 접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일체(一體)를 현시하고 있다. 전적으로 자연의 조화이자 화락(和樂)의 생활이다.

세계의 공원이라 불리는 일본 내지의 화려한 풍경과 이번에 새로 대동아에 돌아온 남방 각 지방의 천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비해 반도의 산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꼴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점만을 보더라도 앞으로 반도는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바이다.

병합 이래 30여 년 국가의 엄청난 노력으로 험벗은 산과 황토색 땅은 점차 녹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매년 산야를 뒤덮는 홍수의 근원과 가뭄의 비애를 끊을 정도로까지 울창한 삼림으로 조선 전체의 산을 뒤덮는 데까지는 아직도 전도요원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초목을 사랑하고 친근하고 자연애를 거리와 정원과 실내에 옮기도록 노력하자. 전시하에서의 근로의 피로는 자연애를 통해 위안을 얻도록 하자. 저속한 오락이나 고가의 위안재료를 찾지 않아도 이 방법으로 가면 오히려 고상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총후의

산업전사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위안을 찾지 말고 자연이 나에게 주는 무한한 위로를 만끽함으로써 더욱 내일의 활동력을 키우지 않겠는가.

초목을 키움으로써 내일의 활동력을 키운다. 이는 초목을 사랑하는 것이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반도를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황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한 그루의 초목에 대한 사랑은 일군만민(一君萬民)의 황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5. 먼저 나부터 생활의 재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문을 나서려고 하면 세 살이 된 '타짱'이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며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한다. 어두워질 무렵 하루의 피로가 쌓인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타짱'이 문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방과 모자를 받아준다. 나도 '타짱'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 '타짱'은 밥을 먹을 때도 똑바로 정좌를 한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일어서려고 할 때는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정좌를 한다. 내가 신단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배례(拜禮)를 하면 '타짱'도 손바닥을 치고 배례한다. 어릴 적부터 □□□□□□ 주입시키고 싶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 유아이기 때문에 강제는 안 된다. 가정의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매달 21일에 월급을 받고 돌아와 봉투 채로 어머니나 아내에게 건네면 월급봉투 그대로 신단에 올려 "고맙게 받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한 뒤에 개봉한다. 원고료가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밥을 먹을 경우에도 아이들은 식탁 앞에서 합장하고 "잘 먹겠습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먹는다. 신께서 주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다. 가정적인 중요한 상의도 신단 밑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의 황민화는 먼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신단에는 이세(伊勢)의 고타이신궁(皇大神宮)·가시하라신궁(橿原神宮)·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 받은 다이마(大麻)²⁰⁾를 봉안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선식 가옥에는 거실이 없어서 신단을 안치할 장소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골랐다. 신사참배는 나도 종종 하는데,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는 매주 일요일에 참배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다.

조상 제사는 멀리 고향을 떠나 조상의 묘에 찾아가갈 수 없는 관계상 매우 열심히 거행하고 있는데, 특히 동생이 열심이다.

어느 때인가, 아내가 아이들을 라디오 앞에 불렀다. 그리고 "라디오는 지금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어요"라며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아내가 용케도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 하고 정말 고마웠다.

장남은 유년학교·소년항공병·육군공과학교 등을 지원해서 신체검사에는 합격했지만 모두 제2시험(학과)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체만은 강건하므로 언젠가는 병대(兵隊)가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차남은 "육군공과학교는 공장 직공 같은 것만 하니깐 제일선에는 나갈 수 없어. 죽어도 보병이 되어 제일선에 나갈 거야"라고 한

20) 다이마(大麻) : 신궁 등에서 받는 신부(神符).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다.

6. 건민강병(健民強兵)과 근로

원래 심신이 모두 건전한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만큼 강한 나라는 없다. 속담에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진실이다. 또 반대로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에서 뛰어난 위대한 일본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삼고 있는 우리 황국은 1억 모두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건강한 국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운동이나 경기 등의 단련으로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국민위생의 철저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로’가 가장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을 밟고 전원에 나가 하루 종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의 훌륭한 건강미에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공장·광산 등에서 망치나 곡괭이를 휘두르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국민의 저 튼튼한 근골을 찬미하지 않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대 총후에서 진지하게 근로보국을 하고 있는 국민은 반드시 건강한 생활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산업전사로서 각자의 직장에서 힘차게 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생산능력의 증진을 통한 총후 국민의 역할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가정적으로 실로 행복하리라 본다. 우리는 한 번 병에 걸리면 자신의 팔에 기대는 가족들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가정은 우울해진다. 직장에서는 또 얼마나 곤란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해 얼마나 죄송스러운 결과가 되는지를 연상할 때, 우리는 각자의 신체 단련의 필요를 통감하게 된다.

그 단련 방법으로서의 체육 위생뿐만 아니라 전답에서 혹은 공장과 광산에서 혹은 기타 직장에서 각자 총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근로’할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근골은 튼튼하게 발달하고 병마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고 기분도 더욱 명량해지며 가정도 밝고 즐거워진다. 또 직장의 생산능력도 증가하고 나아가서는 심신 모두 건전한 이른바 ‘건민강병’이 되어 국력 신장에 기여·공헌할 수 있다. 부디 2,400만 반도 황민은 근로를 통한 신체의 단련을 통해 먼저 건강한 생활의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조기근로배가(早起勤勞倍加)운동이나 청소결재(淸掃潔齋)운동 등과 함께 근로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생산전력의 결전적 증강에 매진하도록 하자. 이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길이자 건민강병을 위한 방도이다.

7. 국어생활은 영남(嶺南) 부인에게 배워라

영남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반도 부인의 ‘국어’²³⁾ 상용에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외근로나 국민저축 등에서 이미 조선 최고라는 정평이 나 있는 그녀들은 국어 생활에서도 최우수라는 영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산골이나 외딴섬의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다.

승합차로 함안군의 어느 산골을 지나갈 때 도중에 4살 가량의 아이를 동반한 부부가 올라탔다. 옆에 있던 승객은 아이가 귀엽다며 아이에게 조선어로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애는 조선어를 모

23) 일본어.

릅니다”라고 했다. 그 부모들은 30살 전후의 조선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정에서는 조선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가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국어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조선어는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해발 1,300미터의 함천군²⁴⁾ 가야산에서는 5살가량의 아이를 동반한 농촌 부인이 멋진 조선옷을 입고 있었지만 매우 유창하게 국어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집이 5-6채 정도씩 산재하는 산골의 부인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 말투였다.

함양군의 어느 승합차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 50살 정도의 할머니가 5살 정도의 손자를 데리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에게 훌륭한 국어로 야단을 치고 있었다. 심지어 노파들까지 국어로 말하는 상황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천포 항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남해도로 가는 30살 정도의 조선옷 차림의 부인이 등에 업고 있는 3살 정도의 아기에게 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철저하다.

농어촌의 반도 부인들이 무엇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도 국민학교 입학 전의 유아에게 그렇게 국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누구의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종 국어로 생활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이를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다는 신성한 마음가짐에서 발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민학교 입학 전에 국어를 할 줄 모르는 아동은 학교 입학 당시에 어려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일본 내지의 아동들과 동등하게 성적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은 반도의 남쪽 관문으로 일본 내지와 가장 가깝고 따라서 내지인 거주자들이 많고 또 반도에서 내지로 왕래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선의 다른 지역보다 국어에 능통한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그녀들의 황민적 생활 의욕이고 아이들을 황국의 신민으로서 훌륭하게 키우려는 노력은 장래의 일본을 짊어질 훌륭한 장병을 육성하려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반도의 인텔리 여성은 크게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반도 사람들은 이 영남 부인들의 국어생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국신민으로서 국어를 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반도에서의 국어 보급률이 20% 이하라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바야흐로 국어가 대동아공영권의 공용어가 되려고 하는 때에 국내의 이러한 실정은 대체 뭐란 말인가. 남방의 토인(土人)도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국어로 말하지 못한다거나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적 일대 치욕임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남방 방면에 근로보국대로서 다녀온 어느 ‘반도청년’의 고백이었는데, 그 청년이 남방의 ○○에 상륙하자 토인들은 일본인이 왔다고 크게 환영하고 뭐든 시키는 일을 잘 따라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너희는 일본어를 모르는 것을 보니 일본인이 아니군. 중국인 아냐?”라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생활의 국어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의 면목을 언어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내선일체의 완성을 촉진하는 길이다.

24) 본문의 ‘挾川郡’은 오기임.

8. 건투를 계속하고 있는 호남지방민

국어 보급·상용률은 남쪽 방면이 철저하다. 제주도의 어느 여관의 여주인에 관한 일이다. 60살이 넘은 할머니였다. 투숙객인 일본 내지인과 처음에는 통역을 통해 말을 하고 있었지만, 통역이 시원찮은 것을 보고는 노파는 직접 찌엄찌엄 단어를 섞어가며 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말을 배웠는지, 훌륭하게 말이 통하고 있었다. 이는 통역의 불편을 극복한 노파의 예이지만, 호남선 열차 안에서도 두 아이와 철두철미하게 국어로 말하고 있던 근로부인이 있었다. 경성 주변에서는 전차 안에서 종종 학생들이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정말이지 그들은 저 노파 부인에게 크게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영혼에 □□□은 결코 조금도 없다.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임신부에게 “남자는 병대(兵隊)가 되니깐 남자아이를 낳도록 해요”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또 아이를 업고 있는 부인에게 “군국의 어머니이니까”이라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다. 차·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청년학도들은 징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군사사상의 보급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청년단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훈련하고 있었다. 청년특별연성소의 야간훈련도 맹렬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애국반 깃발 아래 도로 정비를 하는 근로보국대도 있었다. 근로보국대의 완장을 차고, 화물차에 가득 올라타 서 있는 채로 어딘가로 수송되는 부대도 있었다. 청년연성은 이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천황의 방패로서 국방의 제일선에 서야 할 청년들, 또 이러한 자제들이 있는 일반인도 그 자각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현상이다. ……(두 단락 판독불가)……

제주도의 한라산은 3월 중순에도 눈이 쌓여 구름 위로 솟아올라 있었다. 해녀는 ‘바가지’를 등에 짊어지고 밀물과 함께 포획물을 한 손에 들고 물위로 떠오른다. 전 조선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 부녀들의 근로정신은 이러한 해녀의 해양제패에서 길러진 것이리라. 옛날 삼신이 나타났다는 ‘삼성혈(三姓穴)’은 한라산에 오늘날까지 여전히 성스러운 광경으로서 보존되어 있다. 즉 고씨·양씨·부씨의 시조이다. 일본 내지의 신들은 세 신녀를 보내 그 삼신에게 부인으로 맞이하게 했다는 전설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내지와 반도의 혼혈아 같다. 조선의 원어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제주도는 오늘날 어미에는 반드시 ‘아리마스’의 ‘마스’를 붙이고 있다는 데서도 긍정이 간다. 최근 오사카(大阪) 방면에 있는 사람이 110만을 넘어섰고, 국어의 상용율은 조선 최고라고 한다.

제주도로 가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다가 험해진데다가 배도 고장 나면서 전날 아침을 먹은 뒤 32시간째 다음날의 저녁을 먹고는 겨우 소생하는 느낌이었다. 호남 여행은 대개 점심을 먹지 않는다. 여행객은 여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데다가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는 식당 등이 일제히 쉬기 때문에 여행객은 상당히 애를 먹는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고분(藁粉)가루·쑥·□·솔잎·소나무 껍데기 빵 등으로 매일 증산에 매진하고 있는 가뭄 재해민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뭄 지역의 재해민이 단 하나 기대하고 있던 보리마저 비가 오지 않아 밭아·성장하지 않은 일만은 걱정이 되었지만, 그 뒤 갑자기 비가 내려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던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기후의 변동으로 한기가 찾아왔다.

조선의 2,400만 형제들은 함께 웃고 함께 괴로워하는 정신으로 반도의 곡창을 사수하는 전남의 형제

국어를 사용하고 식사 때에도 정좌를 하고 먹는다. 아동들은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순진한 마음에서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성덕을 기리고 혹은 군신(軍神) 노기(乃木)²⁵⁾를 숭배하고 혹은 총독각하의 덕망을 존중한다. 나는 내선일체의 완성에 있어서의 현재의 소국민(小國民)의 역할을 중시하고 가속도적으로 명랑해지는 반도에서 특히 10년 뒤의 국가 사회를 두 어깨에 짊어질 중견 청년들이 현재 이리도 동심무구(童心無垢), 황국소년으로서 늠름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고 진심으로 너무나 큰 희열을 금할 수 없었다. 얘기는 다시 눈길 기행으로 돌아간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숨어 석양으로 점차 물들고 있는 황혼 무렵, 우리는 서둘러 자동차를 몰아 해발 2,000척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빙글빙글 돌아서 산 정상에 도달했는가 싶더니 급정차. 무슨 일인가 해서 창밖을 보니 앞서 출발했던 승합차가 눈에 미끄러져 계곡에 떨어져 있다. 다행히 큰 아카시아 나무에 걸려 차 뒷부분이 돌로 갈라졌을 뿐, 인명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 같다. 회령에서 급행열차가 눈보라로 탈선했을 정도라고 하니 자동차 사고는 여기서는 다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도중에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 승객이 전부 내려 차를 뒤에서 밀어야 했을 때는 기가 막혔다. 이렇게 추운데! 목탄 자동차는 성진~길주 간 해안도로도, 그리고 웅기-청진의 해안선도 정확히 시간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함북의 철도 시간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엉망이다.

그러나 타이어는 엉망이어도 역시 함북은 약진 함북이었다. “함북을 보지 않고 조선을 말하지 말라”라고 갈파한 것도 수공이 간다. 10억 톤이라고 떠들고 있는 무산·철산은 군 전체가 철산으로 무순탄광의 노천을 파는 것처럼 산을 위에서 차례로 파내려 간다. 이를 중심으로 니테쓰(日鐵)·미쓰비시(三菱) 등 20여 개의 중공업 대공장이 밀집해 있다.

기타 석탄은 곳곳에서 생산되고 노구치(野口) 계열의 석탄액화사업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특수강 광산도 많고 이와 관련된 고주파 공장은 세인들이 기대하는 국책 공장이다. 두만강 연안 및 백두산록의 1000년의 세월 동안 손이 닿지 않은 천연림은 벌목되어 북쪽 제지공장에서 종이가 되고 혹은 군수용이나 멀리 경성 방면의 건축재로 공급된다. 시국상 반도의 원시림 개발은 진정으로 초미의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연산 수억 원의 어업, 특히 정어리 어업과 함께 정어리기를 공업은 함북의 하나의 기관(奇觀)이다. 함북은 그야말로 조선 산업의 중심이다. 따라서 반도의 경기는 이 지방이 좌우하고 또 은진산업(殷賑産業)은 이 지방에 상당한 시국에 베풀부자를 □□했다.

만주국을 배후에 두고 일본 내지로의 가장 빠른 지름길의 중계지로서의 4대 항구인 청진·나진·웅기·성진의 번창 모습 역시 칭찬할 만하다.

특히 청진은 나남 인근까지 합쳐 도시구역은 경성보다 광대하고 일러전쟁 당시 100가구 정도의 한촌이 지금은 인구 20만여 명, 조선 제3의 도시로서 그 자웅을 겨루고 있다. 그 발전 모습은 파죽지세이다. 지금과 같은 건설로 간다면 수십 년 뒤에는 어쩌면 경성을 추월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청진의 건설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경성은 도리어 퇴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건설에는 수많은 문화가 수반되지 않고 매우 조방적(粗放的)이고 거칠지만 ‘조선의 오사카’라 불릴 정도로 공업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있으며, 동양 제일의 어항을 앞두고 무역항으로서도 마침내 1억 원의 기록을 만들고 있다.

25)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1849~1912) : 육군대장. 메이지천황 사망 소식을 듣고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할복함.

약진 함북의 급속한 번영과 더불어 청진의 치솟는 발전에 대해 우리는 모두 찬탄해마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국방상의 견지에서 국토통일 계획의 수행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반도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약진 함북의 소개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만, 이 여행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사상국방이다.

두만강의 물길을 따라 차는 계속 달린다. 차에 몸을 맡기고 풍경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멀리 장고봉(張鼓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주변은 강을 건너면 소련이다. 장고봉사건 이래의 함북 도민의 방공훈련은 진지함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황군의 위력을 신뢰하는 만큼 황군에 대한 감사는 대단한 것이었다.

소련 접경지인 관계상 함북에서의 방공단·자경단·경방단은 방공·방첩·방법에 봉사적으로 총동원하고 □□한 영웅도 많다. 각 역에는 반드시 경비가 붙어 있다. 부락에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수배를 내린다. 쌀의 암거래는 붙잡아 모두 몰수한다. 저녁이 되면 각 부락에서 야간 경계를 한다. 북쪽 오랑캐 방어에 대한 역사적 전통이 있는 함북 남아들이다. 행여 강아지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 따위가 침입할 여지는 없다. “스파이나 공산주의자가 침입한다면 이 주먹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며 농어촌이나 공장·광산·교통 방면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대기하고 있다. 오직 명량한 함북의 건설, 황도반도(皇道半島) 건설의 오늘날에 있어서 진지한 농민이 공산주의자나 스파이의 선동과 선전에 동요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백설의 함북에 약간의 오점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사상 정화의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눈을 팔지 않고 직역(職域)을 통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적성을 다하고 있는 함북 근로자 제군들이여! 제군들은 제군들의 그 모습 그대로가 홍야의 전사인 동시에 북방 방호의 전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군들은 공장에서 해머를 휘두르고 선반 등을 돌릴 때도, 마무리 작업이나 용접할 때도, 모터 운전을 비롯한 기타 어떠한 공작과정에 서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폐하의 적자라는 자각과 책무에 기초하여 자신의 직장에 뼈를 묻는다는 큰 각오로 직역봉공에 매진하고 사봉대(仕奉隊)의 활동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촌에서 호미나 낫을 들고 일할 때도, 광산에서 곡괭이를 하늘 높이 들어 내리칠 때도, 또 해양에 나가 바다 해산물을 채취할 때도 각자의 직역을 통해 신도를 실천한다는 것과 국민방첩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제군들은 직장을 사수하는 일이 조국 옹호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동시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그 속에 신성한 광명과 미소를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량한 함북 건설의 길이고 황도반도 건설을 통한 내선일체로의 총력 고양이며,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통한 세계 신질서 건설로의 진군이다. 영예로운 황국 신민으로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사 창조에 참가하라. 제일선 장병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특히 함북 도민은 후루카와(古川) 전 지사 각하를 비롯해 수많은 우수한 지도자를 받들고 있음은 매우 큰 강점이고 결전 함북을 다지는 데 있어서 관민의 협력일체적인 총진군은 반드시 적진의 중앙 돌파의 위훈을 달성하리라 확신해마지 않는다.

10. 함남의 강점

함남 도민의 시국인식의 철저는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진척된 상태인데, 과거 조선 제일의 사상적 혼란지대인 이 지방의 사상은 매우 건실하고 사상적 전력자도 군연맹의 이사나 통제조합의 이사·구장·애국반장 등의 공직을 통해 봉공하고, 또는 각종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봉공의 결실을 올리고 있음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다. 방첩에서의 도민의 협력은 조선 제일이라 할 수 있고, 방첩주간 행사에서도 각지에서 위장스파이를 잠입시켜 관민의 스파이 퇴치연습이 진지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마침 이 주간 중에 나는 정평 역에 하차했는데, 곧바로 경찰관의 검문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도 동 경찰서 고등주임의 검문을 받았다. 내가 명함을 꺼내자 “아, 가네코(金子) 씨였군요. 당신 저서는 잘 읽었습니다”라며 지인처럼 대했다. 기타 함남 흥상(興上)에서도, 단천·북청 등에서도 방첩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이 있었다.

함남은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3년 만에 옛 산천을 밟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농작물의 풍작이었다. 이 지방에는 작년의 풍작에 이은 풍작으로, 올해도 적기에 비가 내려 전답의 작물은 순조롭게 자라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의 생활은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오로지 식량증산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에는 고등여학교 여학생들이 풀을 뽑고 있었는데, 함흥의 유한(遊閑) 부녀들이 풀 뽑기를 돕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묵묵히 일하는 그 귀한 모습은 참으로 무게감을 느끼게 했다.

운 나쁘게도 총력과에서 점심 대접을 받은 것이 탈이 나서 위경련을 일으켜 고생했다. 정신력으로 견디려고 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주사와 투약으로 겨우 진통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다음날 아침과 점심을 모두 거르고 열차에 올라타 단천에서 내린 뒤 겨우 저녁을 먹었을 때의 그 맛이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방문한 집의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일본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물어보니 그 언니는 여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고 모친은 상당한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도 점차 이처럼 자연적인 향상을 보이게 된다면 바랄 것이 없다.

함남은 금속이나 낫쇠그릇 헌납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중의 북청군 각 역에도 금속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함남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경성 방면은 아직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성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비난한다. 운운”이라는 공격에는 변명할 수가 없었다.

단천에서의 용무는 총력운동 지도자 연성강습회와 주남부락연맹(州南部落聯盟) 임시상회(常會)였는데, 미소기(禊)²⁶⁾ 연성과 총력 실천에 대한 지방의 열의 있는 활동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진지한 것이었다. 각지에서의 장점을 소개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한 구절 한 구절 잘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황국신민의 서사는 누구나 완전하게 익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청에 들렀을 때 사상국방협회의 미·영 격렬 전람회가 마침 순회 중이었는데, 여기에는 약간 관련이 있었기에 느낌이 새로웠다. 북청은 조선 제일의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아버지는 물지계를 하면서

26) 죄나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 강이나 바다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는 행위를 말함.

아이를 중등학교 혹은 전문대학에 보내고, 지금 경성에서의 물지계는 전부 북청의 이러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 자제들은 지금 판검사나 관리·대사업가가 되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덤벙이 북청’의 일화는 상당히 있지만, 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은 오늘날 조선 유수의 실업가를 배출하고 있고 또 군민 각자의 생활도 매우 유복하며 문화적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기타 정평에서의 유한 청년의 근로보국대로서의 동원이나 조선 최고의 비행기 헌납은 유명한 이야기이고, 영흥에서의 면장회의에 면장들이 퇴비를 한 지게씩 들고 온다는 일화는 그 군수의 호걸스러움과 더불어 다른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함남은 대동아전쟁과 더불어 비행기 헌납이 60대 이상에 이르러 조선 최고이다. 함남의 강점은 아주 작은 부락에도 공회당이 있다는 점이고, 특히 북청에는 ‘도청(都廳)’이라는 집회소가 부락마다 있다. 내가 다녀간 고향 흥상에도 정평에도 훌륭한 기와로 만든 공회당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 명령 하나 아래 애국반장 혹은 전 부락민을 모은다. 이 도에서는 모든 활동을 미·영 격멸과 결부시키고 ‘미·영 격멸 강습회’ 혹은 ‘미·영 격멸 저축’, ‘미·영 격멸 증산’이라는 식으로 미·영을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백으로 집요하게 진군하고 있다.

함남에는 유명한 흥남이 있고 최근 단천·원산·안변·고원 등의 발전도 눈부시고, 그야말로 공·광업지대로서의 함남의 강점은 그 도민의 집요성과 더불어 더욱 함남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11. 수수하게 나아가는 충남

연맹의 연락지도반의 최초의 시도로서 충북 진천군 일대를 각자 현지에서 지도를 함으로써 이 군을 도내의 모범 총력군으로 만들기 위해 일행 3명이 나섰다.

2주간 체류 중 미소기(禊) 일야(一夜)연성 강습회 5회, 340명의 강습을 했는데, 군수도 경찰서장도 속옷만 입은 채로 강물에 뛰어 들어가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었다. 군내의 국민학교 선생들도 면 직원들도 부락연맹 이사장도 애국반장도 부인애국반장도 모두 강습을 받고 신에게 절을 하고 글자 그대로 진천군은 조선 최초의 미소기군(郡)이 되었다.

마침 보리 베기와 모 심기 시기로, 여자는 보리 베기, 남자는 모 심기라는 식으로 총동원되었고, 또 청주에서 중등학교 생도대 300명이 모 심기를 응원하러 와서 분투했으며, 국민학교의 아동, 마을의 비농가도 응원을 위해 일어나 이른바 총 기립으로 식량증산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 군은 쌀의 공출은 각 애국반 별로 책임 공출량을 정해 만약 반원에게 공출량에 미달하는 자가 있으면 반원들이 서로 도와 이를 보완한다는 방식으로 공출에서도 조선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면작은 책임 공출 이상은 자유롭게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분발해 면화 증산에 매진하고 종래 면화가 흥작이었던 이 군은 일약 면의 산지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기타 산전(産繭)²⁷⁾에서도, 고공(蠶工)생산에서도 연속적으로 표창을 받은 군인데, 무엇보다 군수와 경찰서장의 불면불휴의 진두지휘에는 감격했다. 군수와 서장은 논밭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거나 호별 방문해서 일일이 독려하고 있는 그 진지함에 군민들은 감격하고 신복(信服)하여 더욱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27) 누에고치 생산.

예부터 살기 좋은 곳은 진천군이라 일컬어진 것처럼 민심은 순박하고 아름다우며 대문을 열어 두어도 도난이 없을 정도이다.

애국반상회의 현지 지도도 했는데, 반원들의 발의로 납세를 기일 3일 전까지 반장에게 납부할 것과 하루 전사한다는 마음으로 1일간 반원 근로봉사를 하고 그 수입을 현금하겠다는 부인반 제의는 당시 임시 반장으로 맡고 있던 내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기타 청주에서 대조봉대일의 정연맹(町聯盟) 상회(常會) 2곳을 방문했는데, 각각 청소 작업·현금상자 설치·금속 회수 등 특징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충주·괴산·음성 등의 각 군에서도 연락지도강습회·미소기 연성·부락의 호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범 면장이나 모범 부락 연맹 이사장의 진두지휘답이 상당히 선전되고 있었다.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조치원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새로 입소하는 지원병 〇〇명의 환송으로 소란스러웠다. 나도 감개무량해서 군중과 함께 만세삼창을 했다. 충청도는 이인석(李仁錫) 상등병도 나왔고 지원병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조치원은 부인의 군사교련도 매우 철저하다. 이곳을 들렀을 때 분열행진 등을 사열하고 참으로 감격했다. 여기도 역시 군수와 서장 모두 열심이었다. 아마 부인운동은 조치원이 조선 제일일 아닐까 싶다. 대덕·연기 등 각 군·면의 계속된 강습회로 지친 탓인지 전의(全義) 강습회에서 3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며 말했더니 목이 쉬어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야기가 여담으로 빠졌는데, 충남·충북은 실로 민심이 순박하고 모든 방면이 수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였다.

충청 도민들이여! 충청도의 전통적인 도의적 정신을 크게 발휘해 도의조선(道義朝鮮) 건설의 추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 자국이 부족한 점은 서로를 크게 격려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12. 평화향(平和鄕)의 황해도

황해도는 그야말로 평화향이다. 황해의 물빛에 기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분을 많이 함유하는 황토, 기름진 옥토, 이곳저곳에 온천이 분출하는 따뜻한 토양, 이것이 황해도민의 따뜻한 성격을 키우고 있음에 분명하다.

각 도읍마다 벚나무 노목이 늘어서 있고 봄은 아름다운 꽃의 황해도를 드러내는데, 특히 해주·남천의 벚꽃은 유명하다. 마을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질서정연하다.

남천읍의 여관에 지친 몸을 쉬고 겨우 봄잠에서 깨어나니 경찰서의 강력한 확성기는 전 읍민에게 “경방단원·감시대원은 즉시 경찰서 앞에 모여 주시오”라고 했다. 아침 6시였다. 넓은 남천읍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강력한 확성 장치였다. 이를 통해 라디오가 별로 없는 시골 사람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또 급보 전달과 비상소집을 하는 것이다. 이 도내에서는 대개 부락·도읍에 강력한 확성 장치를 하나씩 설치해 민중의 교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유효적절한 선전방법이다.

조기(早起)근로배가운동은 농촌 쪽이 철저하고 도읍에서도 조기 후 집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거나 조례를 하거나 궁성요배를 하는 애국반도 있고 또 근로봉사를 하는 애국반도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정돈을 하고 수양·증산에 노력하는 일은 결국 한 생애의 단축된 ‘하루의 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방법이며, 특히 그 정신적 의의는 크다. 조기근로의 집은 번창하고 국민들이 모두 일찍 일어나 일하는 국가는 강하게 된다.

항공 전력의 증강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마(□麻) 재배에는 매우 철저하고 “나누어 주는 □마의 씨앗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종자를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빈 땅이나 방공호 위에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는 애국반장도 있다. 또 가로수 사이나 마당 구석에 재배하고 있는 곳도 많다. 물어보니 1942년도에도 황해도는 예정 공출량의 3배를 수확했다고 한다. 정말로 듅직하다.

대도시는 없지만 읍은 11곳이나 있어서 그 균형적인 발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등학교는 1군 1교의 평균으로 국민연성도장도 농민도장 2곳, 산민(山民)도장 1곳, 중견부인 연성소 1곳이 있다. 각 읍·면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원 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군도 있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부윤(府尹)·군수의 연성회가 있어서 지사 이하 모두 진지하게 실천적 연성을 하고 있었다.

부인은 몸빼 차림으로 장을 보러 가고 가로등도 켜다. 이것이 결전하의 황해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포장용 봉지가 없어서 제일선에 위문대(袋)를 보낼 수 없다는 당국자의 고민을 어떻게든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황해도는 풍작이 이어지고 있고 콩·면·사과 등의 부산물도 많다. 나는 몇 년 만에 맛보는 냉면에 혀가 녹는 듯했다. 양곡(糧穀)의 증산·공출은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보이고 국민저축 또한 조선에서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한다.

도민의 불평불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풍작에서 기인할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황해도는 민심이 아름답고 또 당국의 지도도 적절하다.

국제간선(國際幹線)은 황해도의 동쪽 끝자락을 달리고 있어서 종종 그냥 지나치고 황해도의 강점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쪼록 해주까지 광궤(廣軌)가 지나가게 되는 때가 오면 황해도의 면목도 일신될 것임에 분명하다.

13. 경기의 군부(郡部)도 진군하고 있다

용인군은 부락마다 신사(神祠)를 모시고 있는데, 군민은 신사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예배를 한다. 내가 마침 깜빡하고 신사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12살 정도의 아이가 신사에 예배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신사 앞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배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다. 사람이 보고 있던 보지 않건 간에 이곳 아이들은 이 정도로까지 발전했다. 신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것임에 분명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특히 천주교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종래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신단을 보통 가정 이상으로 정중하게, 게다가 청정하게 모시고 있다는 데서 이 군의 경신적(敬神的) 미점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감탄한 것은 군내의 4개 면의 부락을 호별 방문했을 때 70살의 노인도 부인도 모두 “곤니치와(안녕하세요)”, “사요나라(안녕히 가세요)”라며 인사에 반드시 국어를 상용하는 일이었다. 그중에도 국어강습회에서 6개월 공부했다는 농촌 부인이 면장과 국어로 대화한 일은 정말로 칭찬할 만하다. 너무

나 유창하게 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본 내지인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다. 우리가 “곤니치와”라고 먼저 손을 들어 인사하자 그중에는 당황하며 손을 들고 답례를 하는 부인도 있었다.

단연 조선의 다른 군보다 앞서고 있는 점은 청소·정돈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좋은 면부터 가장 나쁜 면까지 보았는데, 어느 곳을 호별 방문을 해도 구석구석 청소되어 있었고 장작더미도 깨끗하게 쌓아두었고 실내 정돈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으며 가족들은 모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다. 청소·정돈은 약간의 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일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도의 농촌은 민도(民度)가 갑자기 내지의 농촌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농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청소·정돈이라는 방면에서도 할 수 있다.

저축에 있어서도 적은 사람은 매월 2원, 많은 사람은 10원씩 하고 있고, 간이보험도 각 호별로 1계좌 이상 가입하고 있어서 매우 성적이 좋다.

제일선의 면사무소는 매우 바빠서 낮에는 각 부락의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저녁에는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용인면장은 6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논밭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저녁에는 국어강습회에서 부인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수원에서는 부락마다 정보□을 설치해서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히 적절한 조치이다. 대개 경기도의 군□에 있어서의 총력 실적은 결코 다른 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만 각 도·군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군은 서로 다른 군의 장점을 받아들이면 된다.

14. 탈피하는 서선(西鮮) 지방

녹음이 짙고 무더운 계절, 나는 북쪽 아리나례강(阿利那礼河)²⁸⁾까지 빠른 걸음으로 여행했다.

차창에 비치는 산야의 녹음은 하루하루 짙어지고 나그네 마음을 설레게 했다. 무참하게 황폐화된 조선의 산은 이제 녹화운동의 시대의 파도를 타고 □생의 의기와 생동감이 넘친다. 녹음 짙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약진 조선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기차가 달려감에 따라 연선에 있는 산야에는 부녀자들이 능름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진다. 옛날에는 뒷방에 숨어서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던 반도 부녀자들이 지금은 마치 전원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산 확충의 제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몸뺄’을 무릎까지 올리고 호미질을 하고 쟁기를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능름하기 짝이 없다. 남자는 논밭을 부녀자에게 맡기고 시국적으로 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홍수의 무자비한 습격에서 ‘우리 논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은 여행을 통해 내가 감명 받은 일이다.

열차에서 바라보니 조용한 시골길에 두 명의 소년소녀가 숙연하게 서 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묵념을 하고 있었다. 물론 12시의 사이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연령은 둘 다 10살 내외의 소년소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다. 단지 12시의

28) 압록강.

열차 통과를 보고 정오라고 생각하고 광막한 들판에서 돌이서 서서 감사의 묵념을 바치고 있는 저 경건한 모습은 감사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야말로 밀레의 명화 이상의 광경이다. 이 순진한 감정이 반도 2,400만 공통으로 요동칠 때 비로소 내선일체 완성의 때이다. 이 소녀에게 배워야 할 사람들은 없을까.

황군장병들에 대한 감사는 정오의 묵념에 그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잊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감사이다. 열차가 이른바 ○○○철교를 통과할 때 통행자는 반드시 철교 수비병에게 경례를 했다. 그러면 친절하 답례를 한다. 열차가 ○○를 통과했을 때 마침 한밤중에 군인 두 명이 올라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청년이 “여기 앉으시죠. 피곤할 텐데”라며 자리를 양보했다. 이 청년은 만주에서 돌아오는 길인 장거리 여행객이었지만, 반도에 거주하는 무리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데 반해 만주에서 돌아오는 이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제일선에서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황군장병들의 노고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일선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신경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도중에 열차 내에서 우연히 휴가를 나온 두 명의 지원병을 만났다. 지원병 한 명이 모(謀) 지역까지 가는 중이지만 여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표를 도중까지 샀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 지인을 통해 여비 일부를 주었고, 다른 한 명은 어떤 좌담회에 초대해서 지원병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몽했다.

최근 강계의 산속까지 애국반상회를 열게 되면서 용강의 어느 부락에서는 ‘아침모임’을 각 반마다 개최해 궁성요배·황국신민 서사 제창·묵념 등을 하고 있다. 조선 서쪽 지방은 산업 방면에서도 세계 최고로 물이 풍부한 댐이 있고 각종 중요 공업은 이 풍부한 전력 덕분에 생산 전력의 증강에 더욱 광채를 발하고 있는데,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조선 서쪽의 형제들은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궤기하고 있다

서선의 형제들이여! 미·영의 사상 모략을 철저히 격쇄하면서 황국정신에 기초하여 예부터 북쪽 오랑캐를 막은 전통을 살려 미·영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싸워서 이기도록 하자.

15. 국민개병(國民皆兵)과 반도청년의 연성

수세기 동안 미국·영국·네덜란드 등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대동아 10억 형제들을 해방시키고 대동아인의 대동아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 내지의 형제들은 태평양을 피로 물들이고, 열대의 정글과 북극의 빙산에 뼈를 묻으면서 신성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는 인류사상 미증유의 중대시기에 직면하여, 황국 일본의 거대한 일부를 이루는 조선반도의 2,400만 황민, 특히 뜻있는 반도 청장년층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열혈과 치솟는 의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 곁에서 죽어도 후회하지는 않으리”를 연호하며 진정 천황의 방패로서 성전에 참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져 반도 2,400만의 적성(赤誠)에 부응해 1942년 5월 8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역사적 대결정이 발표되었다. 그 순간 조선 방방곡곡 팽배하게 들끓어 오르는 감격의 물결, 환희에 벅찬 만세소리, 실로 반도 통치 30여 년을 통틀어 획기적 성사(盛事)로서 맞이한 것은 1억 국민 모두 감명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에 반도청년의 충성으로 넘치는 염원은 보답을 받게 되었다. 인류사를 창조하는 쇼와유신(昭和

維新)의 영광스러운 성대에 황국에서 생을 얻은 일본남아로서 순충보국(殉忠報國)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사내다운 봉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충렬한 전사를 해서 그 충혈의골(忠血義骨)은 대동아의 반석으로서 영원히 살고 그 충혼 또한 야스쿠니(靖國)의 영령으로서 천대(千代)·팔천대(八千代)에 걸쳐 황국을 지킨다. 그야말로 사내의 소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청년에게 약동하는 이 충용(忠勇)의 일념은 매년 증가하는 지원병 응모자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1942년도와 같이 채용자 □□□에 대해 지원자 수 25만 명을 넘는 상황이었다. 반도 2,400만 황민의 적성은 때로는 지원병 각 호(戶) 1병(兵)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때로는 “황민화 촉진을 위한 국민적 연성(鍊成)으로서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때로는 황국이 임전체제에 돌입하기 직전과 같이 “미국·영국·네덜란드와 그야말로 전쟁을 시작해 황국의 흥폐를 걸고 싸워야 하는 때에 아직 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개탄하고, 때로는 “해군에도 반도 지원병을 채용하라”고 외치고, 때로는 “반도에도 유년학교나 사관학교를 설치하라”라고 절규하고, 때로는 “지원병 훈련소를 증설하라”라고 제창하는 등, 대동아전쟁 발발 직전의 반도 민중의 목소리는 애국적 적성의 불꽃이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500대 이상의 비행기 헌납에, 국방헌금에, 위문함 헌납에, 각종 다양한 군사 후원으로 불타오르는 애국적 적성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반도 황민의 대부분의 소망은 마침내 달성된 것이다. 지원병훈련소는 증설되었고, 수많은 반도청년들은 해군 군속으로서 채용되었다. 또 수많은 반도청년들은 미국인·영국인 포로 감시원으로 채용되는 동시에 미래영겁 청사(靑史)를 장식하는 징병제·해군특별지원병제·학도지원병제 및 국민병역제 등의 실시는 마침내 결정되었다. 내선일체는 마침내 완성되는 때에 이른 것이다. 반도청년이 모두 국방의 제일선에 나서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기꺼이 산화하는 경지에 도달할 때, 내선일체의 결실을 맺을 때이다.

반도청년 스스로 피를 흘리고 순충보국하지 않고 입으로만 내선일체를 완성할 수는 없다. 반도청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과(戰果)를 흠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구히 반도의 수치이고 반도청년의 면목이 달린 문제이다. 징병제 실시는 반도청년의 이러한 번뇌를 사라지게 했다는 데 절대적인 의의가 있다.

황국의 군대는 천황께서 친히 이끄시는 신병(神兵)이고, 칠생보국(七生報國)²⁹⁾으로 군은(君恩)에 보답함으로써 천양무궁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는 것이 국체에서 발로된 바의 병역의 근본사상이지, 결코 구미적인 국방의무론 따위가 아니다. 외국식의 의무관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울 만큼 싸웠다. 즉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므로 행복하겠다”라며 ‘명예로운 포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은 절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국체에 심연을 둔 군신일체·국민개병·대대로 천황은 대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솔하시고 신민은 부름을 받아 폐하의 수족이 되어 신명을 바쳐 국방의 대사를 다하며,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자자손손 이를 계승하도록 해 최후까지 싸워 이기는 바의 신성하고 숭고한 국민의 순국의 정신이다. 반도청년은 특히 이런 점

29) 즉 일곱 번(영원히) 다시 태어나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미이다.

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다이난코(大楠公),³⁰⁾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³¹⁾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清麻呂),³²⁾ 폭탄3용사, 9군신(軍神)에 이르기까지 웃으며 나라에 목숨을 바친, 이러한 정신을 뺏속 깊숙이 철저하게 새겨야 한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반도청년’ 연성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징병제 실시의 결정은 병합 이래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령(聖慮)에 기초하는 것으로, 반도의 2,400만 황민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중추적 추진력으로서 제일선 참가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만민이 평등하게 폐하의 수족으로서 국방에 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는 점에 일시동인의 성지(聖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생활 그 자체도 일시동인이다. 군대는 생사를 함께 하고 노고를 같이 하는 바의 일대 가족이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 실제 부자기간도 미치지 못하는 바의 정적(情的) 결합체이다. 군대에 들어가는 자도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자도 모두 그 무한한 영광에 기꺼이 응하고, 만에 하나라도 지원병제도 실시 초기에 일부 있었던 것과 같은 추태가 반도청년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가족에게 생긴다면 그것은 반도의 2,400만의 수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대책임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자계하는 동시에 이 일시동인의 영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반도청년들에게 이러한 일시동인의 감격을 가져다주는 것이 연성의 두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는 종래 지원병훈련소의 경험에서도 반도청년은 책임 관념이 결여되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식은땀이 흐르는 느낌이다. 이는 반도청년의 생활에는 무사도 정신이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옛날의 무사가 한 번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킨다든가, 또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는 정신으로 곤고(困苦)와 결핍에 견디는 기백이 절대 필요하고 이는 사선을 넘나들게 됨으로써 달성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천적 수련이나 유도·검도나 총검술 등의 무도적 훈련을 조선 전체에 보급함으로써 체득케 하고 또 가능하면 사선을 넘나드는 맹훈련으로 체득케 하는 것, 이것이 청년 연성의 세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는 규율을 중시하는 곳이므로 종래 무통제적·무질서적 생활을 하는 반도청년에게 규율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군율을 존중하고 상관·상사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으로도 뛰어드는 정신을 연성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이는 군사교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연성의 네 번째 목표이다.

의무교육은 징병제실시 전에 시행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시국의 추이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의무교육 실시 전에 징병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청년층도 징병에 응해야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예를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토민군(土民軍)도 혼성되어 국방군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잡군을 통솔해서 큰 승리를 거둔 명장도 있다. 반도에서의 징병제 실시에서도 국어에 능통 여하와 무관하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황국신민으로서 특히 대동아의 지도자인 일본 국민 스스로 일본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레이인이나 자바인, 기타 남방 토인의

30)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생년불명~1336)의 별칭으로, 가마쿠라(鎌倉)시대 말기에서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걸쳐 활약한 무장.

31)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 845~903) : 헤이안(平安)시대의 학자, 시인, 정치가.

32)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清磨, 733~799) : 정확한 표기는 ‘和氣清麻呂’이다. 나라(奈良)시대 말기에서 헤이안시대 초기에 걸친 고급관료.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또 국어를 모르는 자가 입대한 경우 매우 고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나 훈련에도 큰 불편이 있어서 동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소극적이 되거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폐하의 수족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국어를 모른다면 천황의 뜻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참으로 죄송한 결과가 된다.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반도청년은 이 기회에 국어 완전 이해에 노력하고 국어를 상용함으로써 일본적인 사상과 감정을 체득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모든 단체나 부락마다 국어강습회를 개설하거나 공동작업 때에 국어를 서로 가르치는 등 국어 완전 이해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 연성의 다섯 번째 목표이다.

근대의 전쟁은 영혼과 영혼의 싸움인 동시에 모든 과학병기를 동원해 싸우는 과학전이다. 반도청년은 자신의 직장과 환경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전거나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운전, 기타 모든 기계의 조종·수리·제작 등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과학을 습득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이 기계화 국방훈련이 반도청년 연성의 여섯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군대는 일본 내지식 생활원리 위에 모든 근대적 설비를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청년은 생활의 내지화(內地化)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기거에서 식사·위생 등에 이르기까지 내지의 풍습을 열심히 익혀 청결·정돈이나 생활의 간소화 등에 평소부터 노력해야 한다. 반도청년으로 하여금 근대식 생활과 내지식 풍습에 순치시키는 것이 연성의 일곱 번째 요령이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발육·성장의 시기이고 이 기간에 크게 신체의 단련과 체육의 향상을 도모하여 능히 간난(艱難)과 신고(辛苦)에 견디고 왕성한 기력과 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의 체위 향상이 연성의 여덟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나는 지금은 청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청년을 사랑하는 정념에 불타고 나 자신도 언제나 청년의 기분을 갖고 있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는 융흥하고 청년을 홀시하고 청년을 학대하는 국가는 망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다. 세간에서는 청년을 제2의 국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청년이야말로 바로 제1의 국민이자 국가의 대들보이다. 보라! 제일선에 나서서 용전분투하고 위대한 훈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청년이 아니던가. 모든 직장에서 생산 확충전에 분골쇄신하고 있는 것도 청년이 아니던가. 저 메이지유신의 위업을 성취한 것도 존황양이(尊皇攘夷)의 신념에 불타는 청년들이 아니었던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쇼와유신 또한 청년이 떠맡아야 할 역할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도 청년을 사랑했기에 국가를 부침의 지경에서 구원해 오늘날의 융흥을 가져온 것이다. 심지어 저 스탈린도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반도인의 노인들 중에는 청년을 홀시하고 청년을 신뢰하지 않는 고로(古老)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글우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무리들이 말하는 것은 “청년은 경험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청년을 40~50세까지 내몬다면 결국은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거세당한 채로 늙게 된다.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된다. 애국적 지성을 다하는 데 사회적 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한때 청년을 홀시하는 풍습이 구체제적·보수적 무리들에 의해 지배적이었던 관계로 반도청년들은 무기력하고 질서가 없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버릇 이외에 주어진 것이 없다. 징병제 실시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대사를 앞에 두고 뜻있는 자 모두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을 소